朝鮮日報
夕刊
三十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獨墺兩國合倂說로 中歐空氣俄然緊張化

라인再武裝의旣定事實化로 『히』總統、再轉南進意圖

【巴里二十八日發同盟】伊에兩國間의軍事行動이 漸次 終局에가까워오고 獨逸軍의 라인非武裝地帶進駐가 完全히旣成事實化하야 歐洲의國際政局은 方今一段落을 據告되게되엇는데 히틀러總統이 再轉하야 南進策을企圖하고 獨墺兩國의合邦을斷行하야 多年의 國民的宿望을 達成할意向이라는報道가 頻頻히 流布되는結果 中歐의情勢는 緊迫을告하게되엇다 卽 獨墺兩國의合邦案에對해서는 무솔리니首相이 斷乎 反對하고 必要에應해서는 팟시스트軍을 墺太利國內에 出動시켜 武力干涉을할것이라고 據報되며 他方伊太利政府와 對立抗爭해온 유고슬라비아政府는 무솔리니首相이 合邦阻止行動을 取할境遇에는 北方國境을 突破하고 卽時 카린디아地方에 出兵하야 同州의保障占領을 斷行할것으로보인다 히틀러總統은 伊유兩國間의 對立關係를 巧妙히 利用하야 合邦을斷行할때에는 카린디아州를 유고슬라비아政府에 割讓하고 代償으로 同政府에援助 乃至嚴正中立을 要請할作戰이아닌가한다 (寫眞은 南進을號令하는 히틀러總統)

墺國軍大部隊를 獨墺國境에集結

小砲隊戰車隊도出動

【維也納二十九日發同盟】墺太利政府는 維也納과 東部地方에 駐屯中인 國軍의 大部分을 西部獨墺國境地方인 잘스부르그、[illegible]方面에 移駐케하기로 決定하고 二十九日 東部軍管區司令官은 管下部隊에 對하야移駐命令을 發하엿다 獨墺國境에 獨逸軍이 集結되엇다고 傳하는 이때에 右部隊의 移駐는 墺太利政府의 態度를 示하는것이라고 各方面에서 자못 注目되고잇다

【維也納二十九日發同盟】墺太利政府의 國軍移駐命令에 基하야 先鋒隊는 二十九日午後 이미 移[illegible]

新內閣財政政策의動向

統制의目標는 個人營利制限

(三) 徐椿

그러면 어떠한目的을 가진 國家本位的統制經濟主義가 實際로 國家政策에 具現될때에 그것은 어떠한 方策을 取하며、어떠한 內容을 가질것이냐? 이에對하야 概略的說明을하야 보면如左하다。

一、事業經營의 標準은 國家本位的 統制經濟는 첫재 事業經營의 活動範圍는 [illegible] 國家의 事業의 [illegible] 事業은 [illegible]

二、[illegible] 個人의 活動範圍는 그만치 縮少될수밖게 업다。

三、國營事業의新設 國營事業의 一部 그中에서도 모든 産業의 基幹事業이라고 指目되는 動力事業이라든가、燃料關係의 石炭、石油等을 國家事業으로 할는지 모른다。

四、投資의統制 政府는 [illegible] 會社、共濟組合、貯蓄銀行等에 命하야 引受하도록 强制引受制를 쓰게 될는지모르다고 [illegible] 이 말하는것은「投資의强制制度」를 意味하는것이다。그리고 이 投資强制制度는 此를 그裏面으로 말하면 事業選擇權을 政府가 그手中에 掌握하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何故오하면 이 强制制度에 依하야 民間金融機關이 政府公債에 投資하게 되다는것은 卽、(一) 軍需事業에 投資하는것을 意味하는 同時에 (二) 아모리 有利한 他方面의 事業이 잇다고할지라도 거기는 投資할수 업서 되는것을 意味하는 까닭이다。故로 이런 意味로 보아 金融統制는 大體、產業統制를 隨伴하게 되는것이다。

別하는 標準은 國家的見地 又는 大衆本位的見地를 標準하야 判斷하는것이다。例하면 株式取引、期米取引等等에의 投資는 此를 國家的見地로보나 大衆的見地로 보나 有害한 投資이니까 政府는 이方面의 投資는 此를 어디까지든지 抑制하는 方針으로 갈것이다。

五、產業部門許可制의强化=特히 軍需產業部門에 잇서서는 必要以上의 二重投資를 防止하며、緊急、不急의 順序를 따라서 發展시키기爲하야 許可制의 强化를 볼것이다。

六、配當制限=從來、모양으로 民間會社가 事業을 經營하야 利益이 나면 곳 株主에게 全部配當하야 個人의 私腹을 채우는 制度는 조치 못하다고 생각하야 國民的利益을 [illegible] 政府의 權力으로 利益金을 制限하야 此를 社內에 保留케 할것이다。此를 社內에 保留하는것은 그것으로써 (一) 技術改良及 事業擴張에 쓰며、(二) 商品價格의 引下를 斷行하야 消費大衆에게 가급이 잇스며、(三) 不意의 將來할수도 잇슬 事業損害에 備함이 잇스라는 뜻이다。

七、公益規定의 勵行=國策本位的又는 大衆本位的經濟統制에 잇서서는「商品價格의 强制引下」그他 公益規定을 勵行하게 될것이다。例하면 低廉安價한 價格을 設定하야 [illegible] 國民大衆에게 至當한 價格가 잇슨 故로 從來 모양으로 價格決定權을 民間會社에 放任해 두지 안코 政府의 權力이 此에 干與하야 大衆本位로 決定하게 될것이다。

以上、七項目을 보면 國策本位的統制經濟는 (一) 個人企業의 營利的統制와 (二) 利潤率의 減少를 不可缺의 前提條件으로 할것임을 알수가 잇다。(完)

大陸政策以外에 海洋國策을確立

急激히增加되는人口問題를解決코저

三相會議에서檢討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東亞의 安定勢力인 日本의 地位를 確保하고 이어서 世界平和、人類文化의 積極的增進에 寄與할것을 希求하고 압서 差等比率主義의 軍縮旣存條約을 破棄하엿는데 海軍으로서는 日本將來의 生存을 保障하고 東亞의 安定勢力인 實力을 具現하야 躍進日本의 時局에 對處하기爲해서는 滿洲國의 健全한 發達을 目的으로한 大陸政策과 함께 西太平洋의 平和를 最高目標로한 海洋國策의 樹立과 大陸政策과의 調整을 緊急한 要目으로하고 잇다 따라서 今後 陸海軍 外務三相會議에서는 充分히 右의 諸點을 明白히하야 大陸政策과 海洋政策을 一元化하야 國策으로 樹立에 邁進하야 이것을 內外國策의 基調로하려는 方針이다 卽海洋國策의 具體案으로 日本은 領土가 狹隘하고 人口는 莫大한데 天然資源이 缺乏한데 不拘하고 人口는 해마다 過剩되고 또 그 增加率은 顯著한 現狀에 잇스므로 이打開方策으로서는 人口移植、資源開發、市場開拓을 海外에 求할밧게 업다 따라서 海軍으로서는 國防安固를 期하는同時에 國民의 海洋發展의 氣運을 促進하고 關係各省을 動하야 對外的으로는 太平洋의 國際諸國과의 修交에 努力하야 相互依存의 見地에서 通商貿易上의 利害衝突을 調整하는同時에 國內的으로는 南洋委任統治의 行政機構의 强化、通商貿易上의 助長、海運業과 水產業의 進出、人口의 海外移植、將來 海外資源의 開發에 努力하는同時에 躍進日本의 容姿를 示現하려는것이다

間島省行政區域變更

間島省에서는 省內의 行政區域을 變更하야 現在의 延吉、和龍、安圖、汪淸、琿春의 五縣이 새로 寧安、東寧、穆稜、密山의 四縣을 加하야 全省九縣으로하려고 일즉이 中央政府에 申請中이던바 認可가되여 來七月부터 實施하기로 決定하엿다

靖國神社例大祭

【東京電話同盟】靖國神社春季例大祭는 二十九日의 淸祓의儀에 니어서 三十日午前八時부터 嚴肅盛大히 擧行되얏다 此日午前九時勅使로 掌典九道秀公이 參向、閑院參謀總長殿下의 御拜가게시고 廣幡宮大夫 參列한 寺內陸相 永野海相 宇佐美侍從武官長 西尾參謀次長 梅津陸軍次官 百武海軍中將 奈良、荒木、阿部、荒木、川島各陸軍大將、有馬 末次兩海軍大將等各武官의 參拜가잇고 午前十時부터는 遺族數千名의 參拜가 잇섯다 또 五月一日은 直會의 儀가잇고 六日間에 亘한 祭典은 終了할터이다

救國의神•에國訪問?

南部戰線에豪雨!

戰車進行을阻止

伊軍行動에大打擊

【羅馬二十八日發同盟】伊太利軍總司令部로부터 入電에依하면 에디오피아의 雨季는 例年보담 좀일즉 一月下旬으로부터 始作되어 南部戰線에는 豪雨가 繼續하야 伊太利軍의 戰車進行까지 阻止하게되엿다 하며 고한하야 伊太利의 北部戰線 幾多의 大小河川이 濁流를 橫斷하고 滔滔하게 흘러내리고 잇는것을 發見하는 首都占領은 얼마안가면되야 南部戰線의 伊軍은 十四日 前進을 中止하고 사사바네、다가부등의 占領地에 머물러잇스며 로에쉬를 奪取하고 아디스아베바로向한 北部軍은 雨季까지 移動하지못한 樣相이다 이로부터 雨季에 들어감으로 時日이 遲延되는것은 兩軍의 前途에 [illegible] 이어떤伊軍의 行動은 (寫眞은 에디오피아皇帝)

英蘇海軍會議

五月中旬에開催

【倫敦二十八日發電通】駐英蘇聯大使 마이스키氏는 二十八日 英國外務省을 訪問하고 蘇聯政府는 艦型、砲徑의 質的制限及 建艦計畫 相互通報를 骨子로한 英蘇海軍協定締結을 爲하야 交涉을 開始하고싶다는 英國의 提案을 受諾한다 通告하엿다 右通告의 前後하야 蘇聯大使館附 海軍武官 아이스트、츠킨스키大佐는 右交涉에 對한 本國政府의 訓令을 밧고저 莫斯科로 向하야 歸國의 途에 올랏다 英蘇海軍會議는 五月中旬 開催될 豫定이다

人事•集會

◇嚴昌燮氏(總督府社會課長)內外金剛視察次三十日朝出張

八面鋒

◇五月一日。今年에는 非常時日本의 勞動祭가 戒嚴令아래에 열니는냥。

◇英國「敎內閣이라고 할수잇슴으로 通過는 無疑이나 無事까지는 保障困難。

◇蘇聯이 英國의 [illegible]主義에 賞意를表하야 英蘇海軍會議가 有望하다。

◇여기서도 嘆息이니 모든이니 머리압흔 困難이 한창벌러질 모양인가。

◇今日부터 京城市內의「택시」에「메라」[illegible]。

◇걸모르는 시골사람、[illegible] 은 조흘지모르나 [illegible] 자의 [illegible] 누가올고。

匈牙利『나치스』의 反政府陰謀計畫

五月一日을期하야 一齊히蜂起할豫定

事前에發覺一檢被檢

【부다페스트二十九日發同盟】匈牙利政府當局은 國粹나치스의 反政府陰謀를 探知하고 二十九日朱明 부다페스트市를 中心으로 一齊檢擧를 行하야 헝가리•보스홈메니博士를 爲始하야 十八名의 나치스指導者를 逮捕하엿다 政府發表에 依하면 叛徒一黨은 五月一日을 期하야 一齊히 蜂起하야 쿠데타를 斷行해서 政權을 奪取할 計畫을 進行中이던것으로 전블라博士 內원보러는 綠鉛陰謀에 依居한 [illegible] 匈牙利將軍大佐等의 軍隊約四十名이 發見되엿다고하며 地方在住의 나치스指導者에게는 이미 逮捕令을 發하였다 한다

獨墺國境附近서 獨軍大演習開始

【維也納二十九日發同盟】國境方面의 報道에 依하면 最近 바이에른地方에 駐屯中인 獨逸軍은 獨墺國境附近에서 大規模의 演習을 開始하고 아직 獨墺合邦運動이 再燃을 傳하는 이때에 라틀…잘스부르그地方民은 極度의 不安에 싸엿다

國軍西部移駐는 全혀訓練目的

墺太利政府當局談

【維也納卅九日發同盟】墺太利國防當局은 今回軍의 西部國境移動에 關하야 政府當局은 極히 愼重한 態度를 取하고 日昨日來의 言動을 避하고잇는데 國防當局은 今回의 移動은 何等 政治的意味를 가지지아니하는 旨를 言明하고 二十九日 如左히 簡單한 談話를 發表하엿다 東部地方駐屯部隊가 西部에 移駐하는것은 全혀 訓練때문이다 維也納平地에서 訓練을바든 兵

步兵七十九聯隊 黃海方面에서演習

步兵第七十九聯隊에서는 明一日부터 約二週間의 豫定으로 京元線 黃海方面에서 演習을行하리라는데 이미 先發隊 約百四十名의 將兵은 三十日午前八時二十分龍山驛發列車로 出發하엿다

日中防共協定締結코

冀東政權은廢止

軍當局從來宿願達成

【上海二十九日發同盟】二十九日 天津에서 열린 在中日本當局과 北平 冀察政務委員會代表의 會談의 結果 日中防共協定과 冀東自治政府問題에 關하야 左의 重大決定을 보게되엇다고한다

一、冀察政務委員은 日本政府와 의사이에 防共協定을締結할것
一、右를 條件으로 冀東自治政府는 廢하고冀察政權에合流할것

보로시로프將軍의 메이데이宣言書

【莫斯科三十日發同盟】蘇聯國防人民委員보로시로프將軍은 三十日午後 메이데이宣言을 發表하야 國際情勢의 緊迫을 指摘하야日 國際情勢는 逐日緊迫을 加하야 世界大戰보다 一層破壞的大戰이 언제人民의 頭上에떠

[illegible] 山岳地方에도 이제는 各處가 되지안코 山岳地方이라서 蘇聯軍으로서는 東部國境駐屯部隊를 增加 [illegible] 實行하려고 考慮中이다

宇垣總督의 招宴會

宇垣總督은 恒例에依하야 來二日午後二時부터 景福宮慶會樓에서 各局長以下 總督府官吏 各國領事 新聞通信代表者等 約二百名을 招待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平和의 [illegible] 平和的 [illegible] 努力을 [illegible] 鄰邦의 國境防止에 [illegible] 時에 [illegible] 我國에對한 攻擊은 [illegible] 할것이다

팔레스타인人種抗爭 去益惡化

【예루살렘二十八日發同盟】팔레스타인地方의 亞剌比亞人 對猶太人의 人種鬪爭은 依然 解消되지안코 國內各地에서 兩者의 衝突事件이 續出할뿐아니라 도로혀 惡化의 兆候를 示하게되엿다 首都 예루살렘에서는 二十八日 數名의 亞剌比亞人 暴徒가 猶太人詩人 샤로만 아氏의 自動車에 投石하야 發行을 試하고 또 猶太人의 農產物運搬을 防害하게 되엿슴으로 猶太人代表는 드듸어 警察當局에 對하야 保護를 要求하엿다 亞剌比亞人와 反猶太熱은 國外에도 波及하야 亞剌比亞系 헤드

英國政府는默認?

墺의徵募法施行

【倫敦二十八日發同盟】墺太利政府가 산제르만條約을 破棄하고 國民徵募法을 採用한데 對하야 英國政府는 愼重對策을 考究中인데 結局歐洲剋下의 事態에 鑑하야 正式抗議를 提出하는것은 猶豫하기로 決定하엿다고 解釋되며 卽獨逸政府가 再軍備를 斷行한 以上 墺太利政府가 徵募法을 實施하는것은 國防의 安全感을 確保하기爲하야 不得已한것이라는 立場에서 英國政府는 默認할 方針이라고 본다

팔레스타인에 加勢하기爲하야 [illegible] 레스타인에 入國하고 잇는중이라 政府當局은 事態의 惡化를 두려워하야 二十八日 헤드원族의 入國을 禁止하엿스나 그러나 一方으로는 猶太人의 亞剌比亞人 挑發도 益益增大되어 形勢는 자못 重大化를 告하고 잇다

?나밧을영환웨는『미노지아』

『아지노미』는진조선총독부중앙시험소장공학박사 종영선생과의학박사등여선생이 연해를두고연구한결과 발명한조미계에제일가는것으로 정선한소맥단백질원료로하여 금은특제한것이니그환영밧는리유는
1、구르타민산이만히들어 맛이조흔까닭
2、건강제가되는까닭
3、갑이 딴것보다 싼까닭
4、오래두어도 품질이 변하지안는까닭
5、화양요리에는물론우리 음식에꼭맛는까닭

東京 陸軍偕行社 海軍水交社 御用
優等賞牌受領
滿洲國 機關復興局 臺灣總督府 前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長 農學博士 豊永眞里先生考案
藥學博士 藤永正一 先生

販賣 第二六三七五號
報告書
依賴者 山口縣宇部市 味の美製造株式會社
一、品名 調味料(味の美)
右當所ニ提出シタル分析ノ成績左ノ如シ
グルタミンナトリウム酸九四、五七
鹽化ナトリウム 〇、八八
昭和九年九月二十日
工業試驗所技師 江見浩一 印
大阪工業試驗所 所第一課長 岡田茂一 印
大阪工業試驗所長 工學博士 武司市太郎 印

성분
구르타민나르리움제래품은 百分의七六•三二『아지노미』는百分의九四•五七분량 으로거름고맛은배어상납니다

持	小	持	小	中	大	全	
六五그람入	十五그람入	五十그람入	百그람入	二百그람入	四百그람入	一千二百五그람入	北海道入 등 各種 물이있습니다
九錢	十九錢	五十五錢	九十五錢	一円八十錢	三円三十錢	七円五十錢	

맛조코•갑싸고 건강제가되는아지노미

절약단련은아지노미로부터
아록、어머니은웅식조웨이렇케맛이잇서?"
"어머니" 는여가루를쳐단다"
아룩、거짓말! 양념가루를 쳐도전에는이렇케맛잇섯서? 누가버지더 도맛웃아는구나야
염가로두새로나 옥아지노미
룩찌라 "아 지노미? 참좋 라
어머니 너인 제부터 런는데 경희사람 지발 고 "아지노" 미자 오시오

全鮮特約店 信和 ... 所

朝鮮文化의生命水
最新 哲學概論 韓稚振著 定價
月刊雜誌 宗敎、哲學、科學 復活運動
京城府 鐘路五丁目 復活社 振替京城一一八七〇番

腸 肛 病 專門 海雲內科醫院 京城府貫鐵町 電話 光三七四番 入院隨意 院長 李圭暉

周衣次特賣會
從來의周衣次와는全然히다른高級地가 山積하얏사오니 購求하시는길에 一次往臨하시기를바람니다
洪信의特色? 神秘的技術 流行界의權威
京城府鐘路二ノ一二 洪信洋服店

朝報案內
恩給 長期擔保貸出 他에比較할수업는 有利信用으로 特色乙販賣品
京城府義恩町一六〇 鄭商會

採用 (朝鮮人店員) 朝鮮人用品販賣에經驗잇는年齡 二十歲로三十歲까지 市內精通한者 履歷書携帶本人來談 南大門通四丁目 齋藤빌딩 太洋貿易商會

生年月日과(時間不要)三錢切手八枚만送하면今年身數運을解答함 京城敦岩町一九一ノ一二 申光守

印章紛失廣告
本人의使用하든圓形印章을四月五日頃紛失하야 無效로 以後使用하지 아니하기로 玆에廣告함 李燦鎬

地下에무친文化! "帶方"古墳發掘着手

"樂浪"古墳의發掘은當分間中止키로

斯界五權威者、平壤에集合

총독부 사회과에서는 십일일부터 조선고분(古墳)발굴사업에관한 협의를 오월일일부터 평양(平壤)철도호텔에서 열게되엇다한다 이때문에 성대(城大)등전(藤田)교수 매원(梅原)경대조교수 소장(小場)총독부 미술관 공수 소천(小泉)평양박물관장 등이 모이어 대방(帶方)시대의 고분을 발굴하기로 되엇는데 이번에는 락랑(樂浪)고분의 발굴을 중지하고 곳 발굴에 착수하게되엇는데 금번도 발굴사업에 의하야 조선문화의 원모(原貌)가 더욱 정확히 알리어질것이라한다

帳簿上의收支明確 疑惑도渙然一掃

問題는發說者의進退에落着

聖潔教會內紛後聞

귀보=예수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聖潔教會)교역자들사이에 금전처리와 기타사무처리에 대하야 서로의혹되는소문이 전파되고 잇섯스므로 지난 이십칠일에 재경성교역자유지들이 시내 죽첨정(竹添町)성결교회(聖潔教會)신흥진(申興眞)목사가 락안에 모히여서 청원교회 회원의 한사람으로 잇섯는데 리칠가지의 조목을 들어 의혹되는 중요점을 쪽쪽질문하엿는데 그 질문에대하야 당시자인 리(李)목사와 칠목사가 각기구체적으로 사실의 상위점을 들어 변명하고 다시장부를조사해보기로되야 그 조사원으로 신윤진목사를선정하야 이십팔일오후두시반에 다시 회의를열고 그의장부를일일이 조사해본결과 금전취급에 대한 부정한의혹이라는것은 전연자세를 갈이업시 전부수입지출이 분명히 되여잇는것을알게되엿다한다 그 리되자 그로부터이문제가이러나게된원인을찾게되엇는데 그여러가지의혹난다는 소문을전파해낸 장본인을조사한결과 전자리사회원의한사람이엿든 파재근(郭載根)목사의인에서 발설되엿슴이 판명되엿다 그래서신윤진목사와 그밖에가흥을 가졋든 교역자들도모다 오해를 어룹에국이듯이 전부 푸러버리게 되는 동시에 결국 그책임을 파재근목사에게 묻게되야 파재근목사도 자기가 책임을지겟다고 언명하엿다한다 파재근목사는 리사회가 해체되기전에 허인수(許仁守)、리권(李權)、리명직(李明稙)、최석모 최철모(崔錫模)、김광원(金光源)、서재철(徐載喆)씨등과함께 전자리사회원의 한사람으로 잇섯는데 리목사에게 꾸어준 돈처리에 대하야 그에게 의논업시 처리하엿슴으로 말미암아 드디여 오해가 생기여 중요지방 각교회에 소문이 전파되엇이라한다 이와가티 서로의 의혹이 전부풀리게되엿스므로 파재근목사의 전하는말을 맛고 문제를이르키다가 지난삼월 총회당시에 면직을 당한 평택교회(平澤教會)의 김광원 목사와 청량리교회(淸涼里)서재철목사에게 대한 복직문제가 아프로 강구할 문제라한다 그리고 그회합은 그날오후 여섯시에 원만히 폐회하엿다한다

朴完植上告公判 原審대로一年役

세칭신간회(新幹會)사건으로전주지방법원과 대구복심법원에서모다일년징역의 판결을밧고 고등법원에 불복상고한 치안유지법위반피고 박완식(朴完植)(三二)에대한상고공판은 삼십일 오전고등법원 형사법정에서 희두(喜頭)재판장주심 촌전(村田)검사립회로 열렷는데 재판장은일이십분경과가리 일년징역 미결구류사백일 통산의 판결을언도하엿다

崎嶇한運命의母女 再會를언제期必

十九年前이딸을離別한그어머니의斷腸哀話

"相面하기까지엔눈을못감겟다"

멀리 대판(大阪)으로부터 현해탄(玄海灘)을 건너 황해도평산(黃海道平山)까지무남독녀외딸을 맛나러갓다가 차저간딸은 간곳업고 그래서할수업시 북바치는 설음과 룸룸부은무거운 두다리를 재촉질하야 서울까지겨우울려오는길에 본사를차저와 울면서호소한파가잇다

……◇……

눈물과함께 실마리풀리듯이나오는 이로파의애화(哀話)는 지금으로부터 십구년전인 대정칠년부터 시작된다 남편의주인공 량씨(梁氏)는 그때 아직나이 열다섯밧게 되지아니한 정처업는 외딸 하려엿든 부산지방(釜山府)을 떠나서 생의로정을 무려 도다섯 이후 여러해 부산진(釜山鎭)에서

……◇……

멀니대판으로 건너갈때 그가가 울하다못해 아는사람을맛고 멀니멀니처음보는 황해도평산으로 장론것이다 그러나 그의딸이잇는 주소(住所)를 적은 한조각의 조회도업는 그리하야 아무런 밋첫도업는 절은녀자에게는 어데로가거나 살고 삼다는것이 그리용이한일은아니엿다 그는평산군신암면대천리(平山郡新岩面)백천(白川里)고덕배(高德培)란 사람의 딸을맛고 이세상에서 제일사랑하는 그의딸을 그룹리어떠집 업시 다만욕에 그리는 귀여운딸의얼굴만을 보고지내왓다

……◇……

이러하야 남해와 봉쪽에 멀니떠러저잇는 어머니와 딸사이에는 끈임업는사랑을 다만편지로나 푸리가며 십년이란세월이 흘럿는데 소화삼년봄 어머니장씨는 굿처녀 하든 자기(自己)집 근처에서 살다

[illegible]

……◇……

울줄 보앗스면 하는 모녀애(母女愛)에 타오르는 뜨거운열은 아무리하여도 억제할수업섯다 그는참다못해 자기족하에게 서러비 사십오원을 어더가지고는 불이낫케 전긔고데배를 차저가 자긔딸의 압부를 무럿든것이다 이순간이야말로 량씨로하야곰히 망의언덕에서 라당의 기픈물에 한꺼번에 떠러트리고만 바로그순간이엿다 그의딸은 그후이남편 이녀를나앗스나 남편되는자가 매일가리 술만먹어 본래녀자못하는 살님이 아주 기우러지니 자긔의압해를 파려먹으려고하는 눈치를 채리자 전긔 팔레엥은 세어린것을 손에걸고 어데론인가 도망질하고말엇다라고한다

……◇……

량씨는 이러한 비참한사실을 들으면 들을수록 맛나보지안어서 는 참지못할 욕망이 가슴에가득하여저 황해도지방이 좁다고 발바닥이 차저도 다녓스며 경찰에 호소도하여보앗스나 찻는 딸은간곳업고 남는것은 고생과 피로뿐이엿다 가젓든돈도 거이 다업서젓스니 할수잇는일이 무엇이랴! 대판으로 도라갈수도 업고 천번 만번 뒤를 도라보며 경부선에 외로운 늙은몸을 싯고 한마디의 말을 남기고 예날에 낫익은고향부산진으로도라간것이다

……◇……

『나의딸 태영아 어데가서 안히 지내느냐 나는 그것을 하늘에바란다 그리고 실구변전에 너를 중매해준 전긔황해도 고씨(高氏)에게 편지라도한장하여 주렴으나 나는 너를 차즐때까지 부산진에잇겟다 그리고 너를맛날때까지는 눈을감지안켓다』

長篇小說 愛慾의彼岸

今日부터夕刊三面에連載

不遠間公布될 汚穢物掃除令 各府所在地에適用

"府民과府當局의掃除義務를規定" 全文九個條로構成

경무국위생과에서 도시(都市)오물소제령(汚物掃除令)을 제정하게되어 요즈음 심의 실의를 마치고 법제국(法制局)의 심의를 거치게된것인데 우선 이 령은 각부소재지에 적용시혀서 도시미의 유지와 위생보건의 철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종래 각부소재지에서는 그준거(準據)규정이 업섯기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이만흔것을통일하야 적극적으로부가관리하게될것으로 제일조에는 부내 토지소유자 사용자 또는 점유자는 명령의 지정한데로 그지역안의 오물을 소제해서 청결을유지하야 할의무를 질것이다 라고 하엿고 부민은 자기의 주위의 청결을항상 지켜나갈 의무가잇는것은 물론 집앞에잇는 도로까지도 부민이 자발적으로 청결할의무를 지게되여잇다 제이조에 잇서서는 제일조의 장소는 부당국이 오예물을 소제하여 청결을 보지할 의무를 지우게하는 점 등이 즐기를 이루고잇다 그리고 이제령이 공포됨에 떠러따른하부령으로서 시행세측을 제정할모양이다

第三種敎員試驗

경기도 제삼종교원시험은 오는 륙월이십구일부터 칠월삼일까지 시행할터인데 출원기일은 륙월일일부터 륙월이십일 까지라하며 경기도 시험장소는 필답시험은 경기도 회의실이고 실지시험은 수송공립보통학교(壽松公立普校)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선관보와 경기도보에 일간발표할터이라한다

城大創立十週年

二日부터盛大한記念

조선의 최고학부 경성제국대학(京城帝大)은 창설되어 천면의 정은학사를 길러내고 이제 그십주년의 돌을 마지하게되여서 오는 오월이일부터 대학에서 성대하게 한부창설 기념식을 거행하게되엿다 이날 오전아홉시 반부터 석대강당에서 그념식이잇고 오후한시부터 네시까지는 학내개방전람회가 잇는데 의학부의 실험실(實驗室)등은 물론 실리학실의 실험과도서관등 전부를 일반에게 관람식히다고하다、삼일은 예과(豫科)본과의 학생과 직원들이 대며 대학내의 종업원전부의 대운동회가 잇스며 사일밤일곱시 부터는 시내부민관(府民館)에서 좌등(佐藤)정중(田中)두교수의 학술강연이 잇다고한다

靑春과貞操갑!

五千圓慰藉料請求訴

早婚이나노흔悲劇또一幕

조선재래의 구식결혼이 빗저내인 위자료청구소송한건이 삼십일 경성지방법원에 제긔되엿다 원고는 녀자는 현재충남예산군 삽교면신성리(禮山郡揷橋面上城里)에두고현재부내 필운정(弼雲町)이백팔십번지 박홍수(朴洪洙)의 집에 묵고잇슨 박아기(朴阿只)(二一)라는 녀자는 현재부내모모한화교에 재학중인 충남예산군신양면 만사리(新陽面萬士里)유봉순(尹鳳淳)(二一)(假名)을 상대로 위자료오천원을 내라는것인데 원고는 피고와 소화삼년에 피고와 혼례를 들고 이상의 재산가의 통혼이엿는

변호사를 이십일에 그들의부모의 의사대로 결혼식을 거행하야 가려자리에 오른중 피고는소화삼년에 오케되엿는데 그때부터 피고는 아모리기업슨 원고를 돌보지안는것만 아니라 학대가심한으로써 원고는 공연히 정조만유린 당하야 다시상당한다정으로 시집갈수도 업고 꼿다운청춘은 시절을 헛되히 보내게되야 정신상고통이여 간로것이아니니 피고는무신한책임을 지고 위자료 오천원을내라는것이라 한다

後藤大佐拳銃自殺

【名古屋電話同盟】 이십칠일오후 이동보도대 사령부(伊東本部隊司令部)의 공병(工兵)○대장후등(後藤)대좌가 지난이십구일오전 아홉시오십분 대련관동군창고에서 단총자살을 하엿다는 전보가 도달하엿는데 후등대좌는부하의 불통행에 책임을지고 자결을한것이라한다

悲歎의被害者家族 看守를告訴準備

龍山署도卅日부터活動開始

桃花町慘事의續報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간수들의 칠수행질게 소동에 증상을 바든 피해자백선오(白善五)(三〇)의 그후 병세는 아직별변이 업는모양으로 현상대로 간다면생명에는 별려가 업슬모양이라한다

그러나 피해자 백씨의가족은 란리를 격근것가튼 불안과 공포 그리고 흥분이 아직도깔어 안지안흐니만치 잠국을비저내인 장본인되는 신원(新原)간수부장등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잇는중이라한다 그리고또 한편으로는 소관룡산서(龍山署)에서 이사건을 중대하게 보고잇서삼십일오전 열한시반에 성기(星崎)사법주임이 계원을 데리고 오로·빠이씨를을 달려서 경성형무소로 출장하여 형무소당국자와 의견을 교환하는한편 사건에 관계한 간수일동들의 문초에 착수햇는데 이로써 사법권의 정식발동을 보게된모양이다 이번사건의 관계자들은 죄수들을 감시하고 선도하는 직책을마튼 형리(刑吏)들이니만지 도저히 그대로 석유정도에 끄티고 말수업다하여 소관룡산서에서는 그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야 모든사실이 판명되는때엔 단호한처분을 취할것으로 보힌다

따라서 룡산서에서는 사건발생당시에 피해자백씨에게 동정하여 호응햇든 관계군중들도 방금"리스트"를 맨들어 비밀히 조사하는중으로 금명간 그들의 호출도 보게될모양이어서 압호로 주목을 끌고잇다한다

拔劍은重大問題

事實與否를調查中

◇…福田檢事正 談

그런말은 오늘 들엇습니다 방금 룡산경찰서에서 사실을 조사중이니 조사한결과 발견한사실이 사실이고 또 상해죄를구성하게되면 법에 비추어 적당히 처벌할방침입니다 아모리술을먹은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발검을 한것이 사실이라면 큰문제인만큼 엄중히 조사식히겟습니다 운운

아 아니엿기때문에 몰랏습니다 오늘아츰 검사국에서도전화가 왓습되다 지금부터 사건상조사에 착수할터인데설

群衆도取調

龍山署司法主任 談

이번 음주한 간수들의 발검소동사건에 대하여 소관룡산서성기(星崎)사법주임은 다음과 가티 말한다

『사건 일어나는날밤은 내당직 당시 백선오에게 가던튼한 말수는 업게되겟지요 그리고 서는 그러케 가벼게 올리고 나고요? 글세? 현편에따라 유정도에 끄치고 말게되겟스느』

邪戀의三角關係

出獄한本夫를嫉妬코

執拗한情夫는本夫를誣告

남의 안해를 겨로지저하야정 답게 지내양으로 그남편을 감옥으로 미러너코저 공상수의꾼 남용(不正)등을 이르킬 재판을 하고 잇다

발서여생기여 차오든끄테 중국인 우흥(于洪)을 칼로찔러죽인 살인사건피고로내북미창정(北米倉町) 오질오번지 김경성(金慶成)(二五)에 관한언동판결은 삼십일오후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집원(伊集院)재판장주심 주견(酒見)검사관여미리 열렷는데 재판관이 감옥에서나올때까지 판예와다

그에게는 한층 그러한 혐의가 업고 실상은 다음과 가튼 곱직한 사실이 탄로되야 지난 십

[illegible]

中國人殺害犯公判

작년시월이십칠일 부내서소문정(西小門町)에서 도박을 하다가

여덜번放火犯!

十五年懲役判決言渡

몰건을 훔치거 위하야 남의 집에 두번、또 그범행을 감추기 위하야 여섯번、모다 여덜번이나 방화를한 방화 절도피고―강원도 회천군 간동면 구만리(華川郡看東面九萬里) 순성(淳成)(三三)에 대한 언도공판은 삼십일오전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집원(伊集院)재판장주심 주견(酒見)검사관여아래 열리여 재판장으로부터 십오년징역의 판결언도가 잇섯다

海軍機의行方不明

【佐世保電話同盟】 좌세보진수부(佐世保鎭守府)발표=오후○○시 중성(中城)만(沖繩縣中城灣)부근을 떠난 비행정대는 이십팔일오전여덜시반경에 암미대도(奄美大島)부근을 통과한뒤에 「시계불량」(視界不良)이라는 무선전신을 작세보진수부에서 밧고나서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엿다 탐승자는 승야(狹野)대위외여섯명이다 이급보에따라 좌세보해군에서는장기(長崎)웅본(熊本)록아도(鹿兒島)각현에 항해중의어선등에 대하야 수사를 수배를 하는동시에 이십구일 아침까지 아모소식이 업는때에는 구축함(驅逐艦)비행긔등으로 현장부근

妓生의佩物훔처든 假富豪子弟被捉

前科三犯의新興胎生

리부=지난이월경부터 시내에잇는 이름난 가생집만을 차저다니면서 자긔는 석유왕의 아들이라가칭하야 흡은 자긔집아버지의 회갑잔치에 불르려왓느니 하야는 그동안 소관경찰서에서 여러가지 그럴뜻한말로 기생을 속이여서 흥룡엿보아 수만흔 금부치를 도적하야 그당시경찰을 비웃고 돌아다니던 범인에대하야는 그동안 소관경찰서에서 각처에 지명수배하야 엄탐중이던바 돈바드되여 이십칠일 함흥남도 신흥서(新興署)에서 이를체포하

염다 그범인은 신흥군 통고면대흥리(新興郡東古面大興里)에 본적을 경리(慶雲)(二八)라는자로서 작년말에 원산(元山)형무소를 나온후 전긔와 각두고 철도사긔 공갈 등의 절도미수 전과삼범의 범인으로 김송월(金松月) 리화중선(李花仙) 정계향(鄭桂香) 리운향(李雲香)등 기생이 그손에 걸렷스며 그범죄건수가 수십원에 달하여 피해액이 위선 나려난것만 천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運動競技

伯林올림픽에 派遣選手減員

力技、自轉車不參

백림『올림픽』대회의 참가선수는 오월오일 본국참가대표위원회에서 정식결정하기로 되엿다는데 남녀육상 남녀수상 축구 권투 레슬링 하키 등과 초참가인원 결정 등으로 역기(力技) 자전거 근대오종경기 등은 불참하고 대표선수단은 약 이백오십명이 되리라고하며 육월십일경에 본대 이백육십명은 륙월 이십일경에 동경출발 시베리아경유로 출발하기로 되엿다

天津遠征갓든 平壤軍昨日歸壤

開城高靑主催 A마라손會盛況

【개성】 개성고등청년회 주최인 『A마라손대회』는 지난이십구일 오전열한시에 개성…토성간 왕복십이리로 거행하엿는데 참가선수는 십오명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갓다

一、吳禮成 一時間十三分十二秒

二、 一時間十四分十秒

三、 一時間十七分十九秒

四、李東雲 一時間二十分五十秒

五、白守昌 一時間二十一分八秒

中等野球리ー그

京商、普專各勝

延專武道今年度任員

慶應3A帝大0

明大3立敎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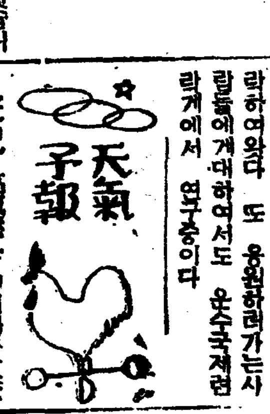
輔仁大學籃球一勝

中等野球리ー그日程

올림픽出戰選手의 旅費割引交涉進捗

【東京電話同盟】 백림(伯林)으로 가는 『올림픽』 파견선수단은 鐵道省을 통하야 소비엣트 철도와 만주국 『하르빈』 등에 운임 할인을 교섭중이던바 그 회답이 왓다

天氣子報



概況 高氣壓은 中國揚子江流域으로부터 滿洲朝鮮에 퍼지고잇스며 千島方面과 小笠原附近도 氣壓이 놉다 低氣壓은 四國압바다와 本州의 南海上及日本海中部에잇서 모다東進中이다 滿洲는게이고 朝鮮도日氣가 良好하다 京仁地方에는 小雨가잇스며 日本內地는 日氣가不順하며 降雨가잇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개이며 京畿道全道도갯다 明日京城地方은 개이다흐렷다한다 京畿道全道도갯다

昨日 最高 一六度六

同 最低 六度六

今朝最低 六度九

今日正午 一五度三

蔘茸精 高速度血液補給補陽補陰强壯新藥

이약은 사람이생기면서 신농씨(神農氏)가 여러백가지풀을스스로맛보고 醫藥을창조하실때사람의百病을다고치고 그수명을오래가게하는데있어서 人蔘과鹿茸의 조흠은 ……

藥價 五圓 二五圓 三圓

淋疾藥界의覇王 トリパリン

人生에가장苦痛을주는淋疾을根治하시라

初期에는 治療에念慮하다가慢性이되면 苦痛이甚하지안음으로 放心하기쉬운病이다 淋疾은 ……

藥價 五二圓

나로ー나ロー 고급급만성 위장약

조선에서 가장만흔병이속병이다 ……

藥價 五二圓

貴重한어린이病에特効한家庭常備靈藥! 인다한 賢丸

子女는 生産하는이보다 업시잘기르는이가 참으로내子女가됩니다 ……

藥價 四十錢

以上藥은日本全國及朝鮮全國藥店에서販賣함

京城府授恩町三二 總發賣元 朝鮮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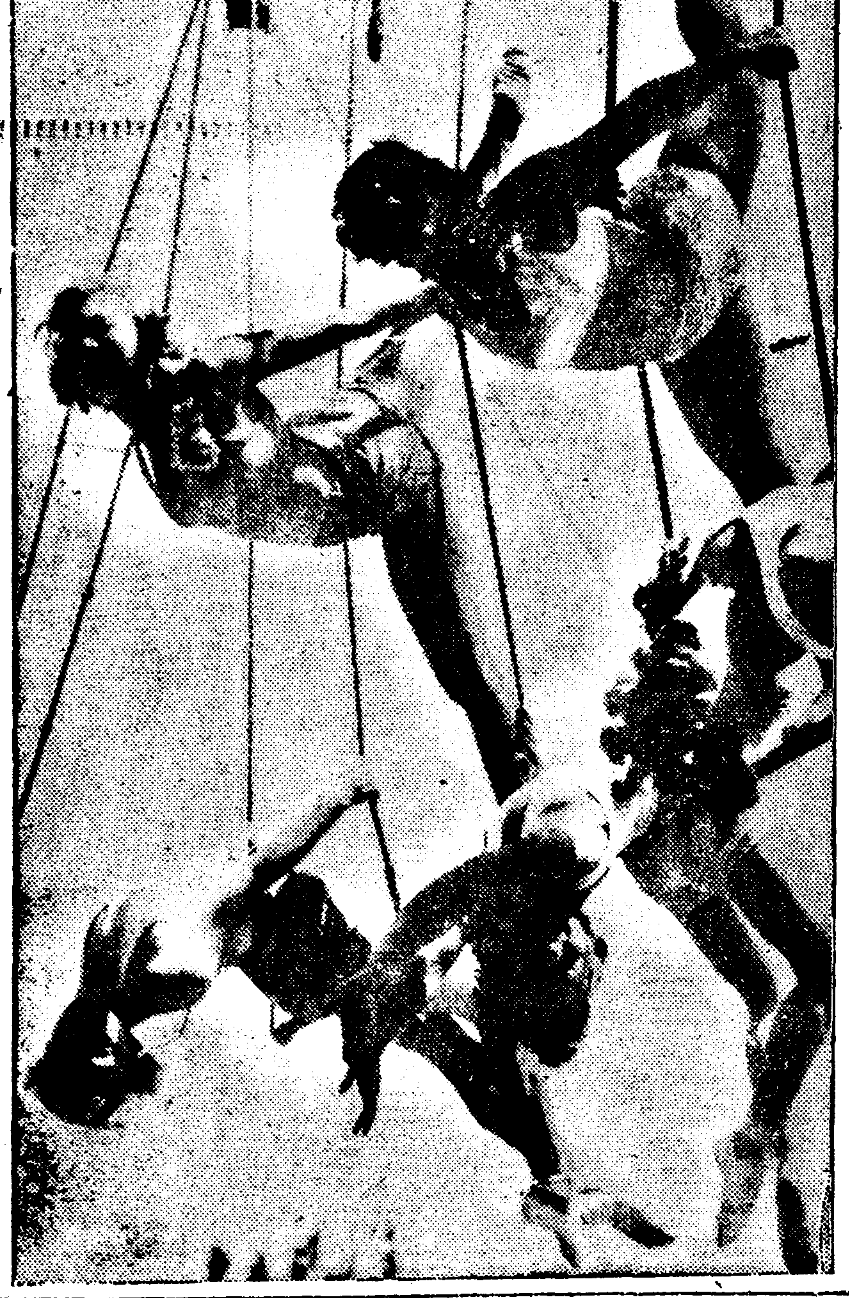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阿峴 本舖 普生藥房

朝光五月特輯號의壯觀

發行部數最高記錄
雜誌王『朝光』의飛躍
文化史上初有의犧牲出版
보라、嶄新豊富한이內容

우리는 오월을 사랑함을 말햇다 꽃은피면 곳 지는것이지만 오월의 태양 오월의신록 오월의우슴 오월의새노래 여기에 숨어잇는 생의빗 아니 여기서보는 이 자연의성장이 곳 우리인간에게 큰 힘을주는것을 몰랏다 오월은 우리의생명으로부터 빛을 나타나게하고 우리의 피로부터 노래를 자아내는 때다 오월은 우리의생활을 새롭게 박구워주는때요 여 박구워지는 생활에서 인류의 진화와 모든 문화를 향상케하는때다 그리고오월인간의 마음속에잇는 소우주(小宇宙)에 새로운 경륜을 창조케하는때다 오월은 우리인간의 미의의식(美意識)을 도드는때요 여기서 우리들 인간의 생활예찬(生活禮讚)이 엇는때다 조선잡지왕 조광은 언제나 그 씨―즌의 촉감을빨리가저다가 독자제씨의 생활에 끼치는바가 만코 또한 거기서엇는 자연의 힘이라든가 거기서엇는 생명의 략동을 측접 독자제씨에게 붓도드는바이지만 이번 조광(朝光) 오월호(五月號)는 자연을 사랑할줄모르는이들에게 오월에대한 새로운 늣김 또는 그 매력(魅力)그 애착(愛着)― 그보다도 오월의 엔무(五月의舞踊)를 드리고자 편집에 극력을 거기다 붓엇스며 화보(畫報)로부터 내용 기사에이르기까지사백여페―지(四百餘頁)의 큰 잡지의지ㆍ끗까지 신선한 향긔가ㆍ무르녹게하엿다 그뿐아니라 시사문제 특별논문 창작소설 이로 헤일수업는 자미잇고 실익잇는것이 너무나 만이 실리엇다 더구나 갑슨 여전히 三十전이니 이 조광이야말로 순연한 조선문화에 기여하려는단성으로 매저진 희생적잡지다 ―――

明朗五月의行進!
珠玉가튼詩歌와隨想
新綠의理想境찻는文人의붓끗
燦然『朝光』五月號의陣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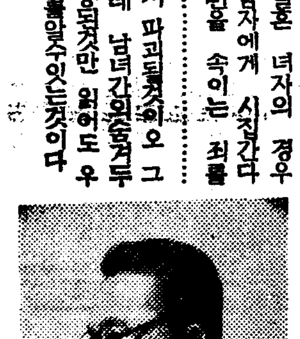


▼▼……靑春潑剌!五月의躍動……▲▲

오월의하늘은 맑고명랑하다 신록의향기 새롭고 만화방창한게절! 이때야말로 약동하는 청춘의 혈조는 뛰끌른다 여긔시인묵객의 시와글이 한데합처 아름다운수를 짜내게되엿스니 그것은오월의서가(詩歌)로주옥가티 아름다운 여성편의시와 그정렬히 흘러넘치는 수필열편이그것이다 시가로는 리광수씨의『비닭이』『창의문에서』와 적구(赤駒)의『山上에서』『내ㅅ가에서』그리고 일석 리희승(李熙昇)씨의 봄 그리고 류치환씨의『義州ㅅ길』이 읽는데 모ㅡ두조타 수필로는 오월의수상 이란제목아래 여류문사만을 망라하여 모윤숙(毛允淑)씨의 일어버린오월 조정순(趙貞順)씨의 비오는거리、김말봉(金末峰)씨의『오월은 내사랑의상징』등 모ㅡ두그들의 최근에늣긴 감명깁픈 글이다。 그리고 내가그리는 신록향(綠鄕)이란제목아래 신록의향그러움소를 김진섭(金晋燮) 김영희、전무길、림화、김유정김문집、안회남등 제씨의 빗나는 붓끄트로 그리어마ㅡ치 그아름다운곳을 가보는것갓튼 늣김을 준다。 이것이 모ㅡ두조광(朝光)오월호에 실렷스니이조광잡지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자미잇고실익잇는잡지임을 누구나 시인하지 안흘수업다。 그리하여 조광(朝光)은조선뿐만이아니오 일본내지、만주、미국로시아、영국에까지 팔로가 잇다하나 이조광은 조선문화사상의 금자탑이 아니라고 누가부정할 것인가

處女性問題
思春期處女의好讀物
處女性을일흔女性과그批判
安在鴻、李光洙兩先生의名論文

처녀성(處女性)이란 귀하고 아름다운보배이다 만일 처녀로써 이것을 이저다면 그것은 벌서 낡어빠진 신짝만도 못한것이다 그런데 사춘기(思春期)가 되면처녀들이 부질업시 마음이들떠 남성에게 유혹되는일이만다 이제 이 처녀성을일코고민하는 녀성에대해서 사회평론가(社會評論家)안재홍(安在鴻)씨와 소설가(小說家)리광수(李光洙)씨 두분께서팡명을 등진 그들의 압길에대해눈물겨운 지시가잇다 이제 그글(리광수씨의글)의 일절을 인용해보면『처녀성을 일흔 녀자의 경우로보면 그것을감추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다하면 혼인하는 첫날부터 남편을 속이는 죄를 짓지안으면 안되게된다……… 그리하야 이것이 폭로되는 경우에는 그가정은 수습할수업시 파괴될것이오 그 파괴가 그치지면 느질수록 그영향이 커질것이다……… 그런데 남녀간의숨겨두엇든비밀은 언제라도 폭로되고야 마는것이니……』 이한절이용된것만 읽어도 우리는 얼마나 처녀들에게 경계하고 지도하는 글인지를알수잇는것이다



(사진은 (上)安在鴻氏 (下)李光洙氏)

血淚로點綴된
李貞喜孃의飛行十年史
한때는고용사리로、한때는자동차운전까지
異域에서보낸눈물어린이手記

고생사리속에 이등비행사가되기까지의 피눈물의긔록! 이것은 오족 조광(朝光)잡지에 서특별히 게약하여어든 귀중한원고다 당당 원고지로 이백여페지의 장편 비행십년의고란사(飛行十年苦難史)로서 이는 누구나 한번 읽어볼만한일이다。 가알핀 여자의몸으로 어떤때는 고용사리 어떤때는 자동차운전수로 이등비행사가된 그의생애를눈물로 엮근 이수긔를읽으라!

(사진은 리정희양)

朝光五月號內容

表紙……安夕影
畫報 音樂家群像、桂貞植、全璐、安炳昭、李貞善、金仁洙、李興烈
誌上映畫帖……鄕愁、追憶、三十九夜、東遊、나의청춘、運河의微風
◇詩歌
비닭이……春園
彰義門에서……同人
山上에서서……赤駒
내ㅅ가에안저……同人
봄……一石
義州ㅅ길……柳致環
◇五月의隨想
일어버린五月……毛允淑
비오는거리……趙貞順
五月은내사랑의象徵……金末峰

創作小說도
堂堂五篇!

창작진으로 이번은 리기영(李箕永)씨의 배량 엄흥섭(嚴興燮)씨의 힘 최명익(崔明翊)씨의『비오는길』김유정(金裕貞)씨의동백꽃은 모ㅡ두 자미잇고가치잇는 예작품이다 그리고 함대훈(咸大勳)씨의 련재장편 소설순정협(純情峽)은 이번호에클라막쓰로 흥미는 그절정에달햇다 더구나 이소설이 이번영화된다하여 더욱 인기를끌고잇다 그리고 리헌구(李軒求)씨의 번역인 탐정소설명모유죄는 원작이 원작인만큼 커ㅡ다란 흥미속에 제일회가 실리기 시작되엿다

斯界權威가執筆한
實益잇는時事論文

정치경제론문으로 서춘(徐椿)씨와함상훈(咸尙勳)씨라는말할것도업듯 게까지되는 두분의글이 조광(朝光)오월호에 실리엇는데 누구나 자미잇고유익하다고 서로들읽으려고 애를쓴다고한다 그런데 서춘씨는 론돈해군조약(倫敦海軍條約)과 세계해군(世界海軍)의추세(趨勢)란 제목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된 이문제를해군문제의권위이니 바이워더를능가할 그예리한붓끗으로 해설비판하엿다 그리고 함상훈씨의 론문 광전내각(廣田內閣)의 금후전망(今後展望)은 그문제의 二·二六사건이후의 일본정국이 엇덧케될가를 관측한 중요한론문으로 이도한 측접조선과의 정치경제적영향이 크니만큼 주목해 읽는다고 한다。 그리고 리건혁(李健赫)씨의 조선매약업의전모는 참으로 우리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이잇는 가장 귀중한 론문이기때문에 또한 크게 읽히다 이것이 모두 조광(朝光)오월호에 실렷다하야 이도한 굉장한 인기다。

文壇의鬼才
金文輯氏의失戀記

최근의 문단의 괴재(鬼才)김문집(金文輯)씨의 이번 조광오월호와 호독물이다 씨의 이실연고백긔(失戀告白記)는 그가 동경문단에 진출하려든때를 중심삼고 이에비극을 차고도는 눈물의 숨긔이다 이눈물의 실련긔! 이는 순전한 호사자의 부술업는 붓작난이아나오 참된 예술을 창조하기위해 일어난 비극임에 일독할가치가 잇는것이다

자미잇는
어린이론문

오월 첫공일은 어린이날이다 이것은 우리 조선소년운동사상 빗나는 항목의날이다。 이에 그 특집을 발행하야 조광 오월호에 실리엇다。 누구나 어린이를 두신 가정에선 이를 한번 꼭 읽으서야할것이다。

心靈篇章……金石松
時事論文
倫敦新海軍條約과世界海軍의趨勢……徐椿
廣田內閣의今後展望……咸尙勳
朝鮮賣藥業의全貌……李健赫
東亞業苗全羅道의生活……車相瓚
文化와民俗
朝鮮姓氏로ㅡ맨스……春香山人
살릇의由來와그뮈……白花郞
百濟美人都彌의妻……靑吾
◆내가그리는新綠鄕
新綠속의空中樓閣……金晋燮
아득한田園의片想……金永壽
水都蘇州의春光……全武吉
푸른旨작이의誘惑……林和
五月의산골작이……金裕貞
꿈에그리는幻想鄕……金文輯
昌慶苑푸른그늘……安懷南
論評
小倉博士와梁柱東氏의論爭批判……劉昌宣
三大學藝面과評壇에對한抗辯……金文輯
◆映畫製作의苦心談
朝鮮映畫製作의諸問題……朴基采
映畫製作의裏面相……梁世雄
映畫製作의過程……申敬均
文壇生活三十年의回顧……李光洙
즐기는花草 내집의花草
李基世……李泰俊……金晋燮
金尙鎔……金允經……金珖燮
金福鎭……鄭相燮……林貞姬
朴花城……高裕燮……柳淑重
朴月灘……李秉岐……高鳳京
李明輝
아들로본아버지 (洪碧初論)……洪起文
◇音·樂·漫·談
現代西班牙音樂……金管
樂映畫돈키·호테의音樂的價値
樂壇風聞·映畫界消息……笑話 張飛
連載探偵 明眸有罪原作(三島)(第一回)……李軒求譯
◇입센死後二十年記念特輯
近代劇의父입센의生涯……金珖燮
입센의思想的異端……李軒求
人形의家에對하야……洪海星
입센作品舞臺에서본女性……毛允淑
人形의家에出演한記憶……金福鎭
나의飛行十年記女流二等飛行士의눈물記錄……李貞喜
◇漫文漫畫
모던沈淸傳……金龍煥
全大砲……崔永秀
유ㅡ모어小說 家庭敎育……[illegible]
世界遇遊記……李克魯
朝鮮作家群像……李瑞求
法廷實話……情婦에게放火한女子……李鍾模
心境告白나의秘密記……金文輯
宮中秘話……內人生活은어떤가?……一記者
科學的코ㅡ나의生活……崔奎南
處女性을일코苦悶하는女性에게……安在鴻 李光洙
◇五月一日은어린이날
어린이날과保育問題……民世
어린이運動의今昔……李定鎬
學校小說 [illegible]……李箕永
短篇小說 힘……嚴興燮
中篇小說 비오는길……崔明翊
農村小說 동백꽃……金裕貞
長篇小說 純情峽……咸大勳

누구나읽어야할 『女性』잡지

『여성』 잡지는 『조광』잡지의자매지로서 창간호부터 커ㅡ다란인기를끌고잇습니다 가장신선하고자미잇는 이잡지는 표지도조커니와 내용도 훌륭한것으로 가정、학교、처녀、부녀、극단、영화、생리、법률、양재、수필등 아조자미잇는것만이 실리엇습니다 더구나 자미잇는 창작단편이며 장편소설은 누구나 살뜰사독하지안코는 못백일것입니다

定價十錢 送料一錢

斷然朝鮮雜誌王
朝光 五月號

堂堂四百餘頁의大册

発賣中

燦然히빗나는朝光
卽速注文하시오

本誌四月號는 暴風的으로 賣盡된지가 已久합니다 이것은 오즉 本誌가 朝鮮第一의 嶄新하고 豊富한 內容을 가진것과 熱狂的 愛讀者의 참된 聲援의 證據입니다 이번號도 賣盡되기前 미리注文해두십시요

美麗極致의表紙嶄新한內容

每號定價三十錢 地方郵稅本社負擔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振替京城五八七八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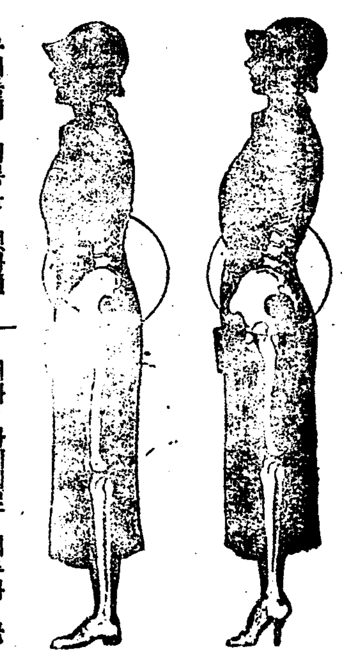
굽놉흔구두에 가진병이다생겨

그중에도만키는락태와가슴병

신녀성은 한번생각해볼문제

부인네의 굽노픈 구두는 보기에 그다지 조흔것도 아니언만은 한동안 유행에 딸리어 개나、괴나 다 신엇습니다。최근 멧해째는 훨씬감소한 모냥이라나 키적은 조선부인네들이 키를 좀 모두보이기 위하야서 만히들 신습니다。그러나 미국 의학박사 벨·우드·곰스록선생의 연구를 들어보십시요。그선생은 다년연구한결과 굽노픈 구두가 부인네의몸에 대단히 해가잇다는것을 발견하얏답니다。이글은 아메리카의『건강』이라는 잡지에 실린 그의 론문을 추리어 옴기고 또보태어 적는것입니다。부인네에게 적지안한 참고가 되리라고 밋습니다。

◇ ◇ ◇



우리들이 거름을 것자면 왼몸의 무게를 발끄호로모으게됩니다。그러자니까 발끗을 충분히 펴서 드듸여야 할것입니다。그러나 하이힐은 끗치 몹시 빠르기 때문으로 발끗이 부자연해질수밧게 업습니다。힘줄이 잡아땡기고 피의 순환(循環)이 해로운것은 말할것업고 끄님업는 압박(壓迫)에 도모지 감각(感覺)을 일허버리게까지 됩니다

×

공연히것는중에척추(脊椎)를 뒤흔들어서신경계통(神經系統)에다가 충동을 줍니다。그충동은 왼몸 모든 긔관(器官)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그러나 그뿐인가요? 우리가 거를때는 몬저왼몸의 무게를 아프로 내보면서 한거름 한거름 아프로 나가는것이 아니겟습니까? 하이힐로 척추와 골반(骨盤)에 부자연한 부담(負擔)을 시기게됩니다。그결과 배ㅅ가죽을 압박하고 가슴통을 벌지못하게 하야서 호흡긔관(呼吸器官)의 여러가지병을 이리키게됩니다。

×

이것은 대체 신경계통이라든지 끔겨에 대한 해독만흠말슴한 것입니다。그것이 근육발달(筋肉發達)에조치안한것은 두말을 할 여부가 업습니다。

×

본래 부인네들이 하이힐을 신는다는것은 발을 조그마케 보이기위한 것입니다。편안히 안저 놀고 먹는 소위유한부인(有閑婦人)들에게는 물론 발이 적어서 이뿌게뵈는것이 한자랑거리로될는지 모름니다。그러나지금은부인네들도 남자와한께일터로 나가서 일을하게 됩니다。양복가튼것도 될수잇는대로편리하게 고치어 집니다。구두만이 도리어 불편하여서야 쓰겟습니까? 하이힐이라니 말이 됩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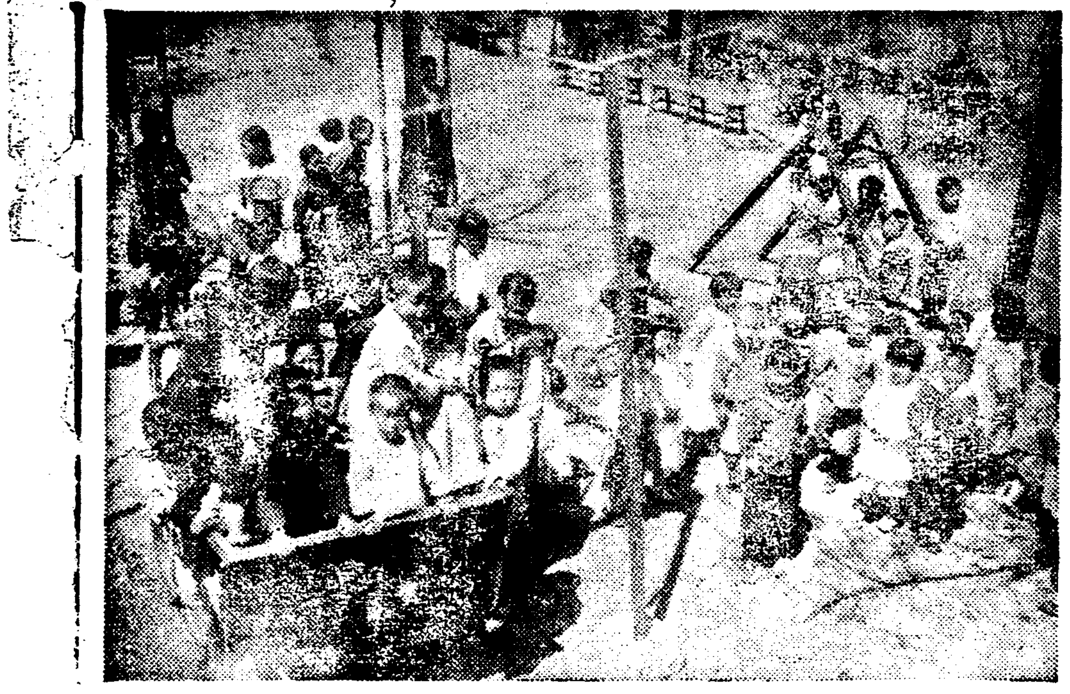
더구나 임신중에 하이힐을 신다가는 혼이 나태를 하게 됩니다。그것도아마 골반에낫븐 영향을 끼치는까닭이리라고 생각됩니다。이러나 저러나 하이힐은 단연 폐지해야 됩니다。그와가티 몸에 해로운줄 알면서 그런구두를 신는다는것은 될수 업는일입니다。(그림 올흔쪽은 굽놉흔구두를 신엇을적의체격 왼쪽은 굽나즌 구두를 신엇슬때인데 허리에 동그래미를그리인 그속을보시면알지만 굽놉흔구두를신으면 자연척추가 휘고 골반의 위치가납버지며 가슴에 악영향이 미칠것이완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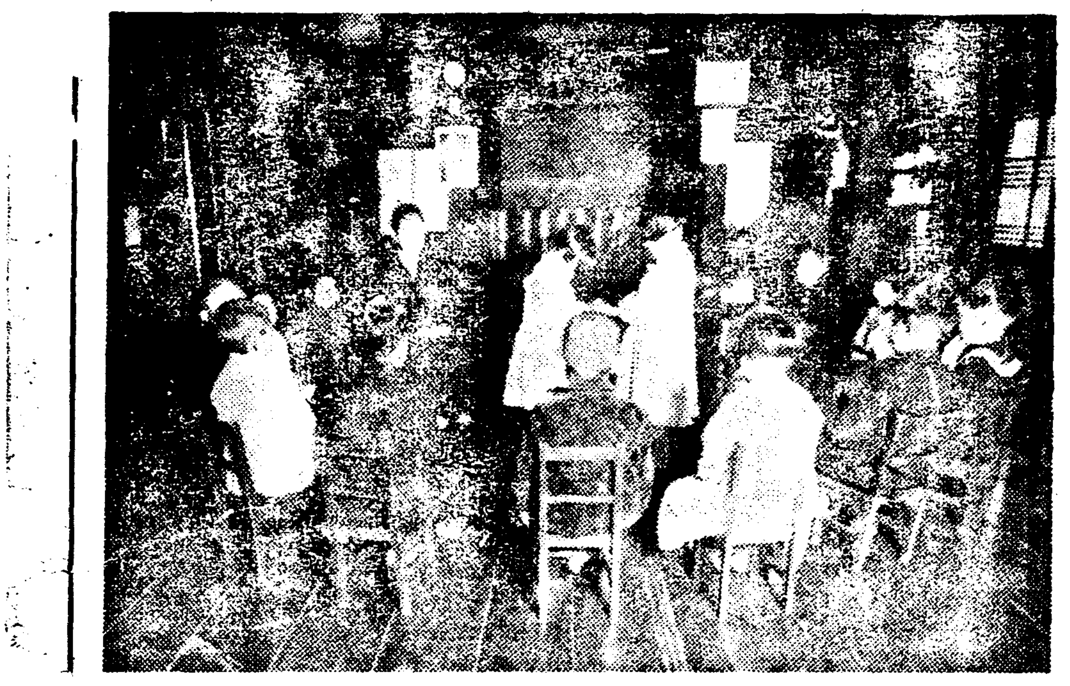
幼稚園巡禮記 ⑩

新門內幼稚園

보육실이 넓고 시원한것이마음에 듭니다 장방형의 길죽한 방 동쪽과 남쪽벽엔 예수 마리아의 사진들이 섬스럽게 걸엿읍니다 바로 유히시간입니다 고양이노리가 끗나고 물건찻기가 시작되때라 한분 선생님이 풍금을 치시고 리순갑선생님은 아히들중 한아히를 선택해 가운데 내세우시고 눈을감긴후노랑새 은물공을 어느아히에게숨겨줍니다 다—숨기고 나면 풍금소리가 고요히 가늘게 흐르게 시작되어 물건찻는 아히가 눈을뜨고 동모들이 둘러안즌그 원을 뱅뱅돌면서 공이 어느동모에게 숨겻을가 하고 풍금소리에 귀를기우리고 또 동모들의 눈치를 하나 하나식 최다 살펴가면서 공을 차저 냄니다 정말 어린 탐정가들의 태도는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원아는 사십오명이고 선생님은 두분이라구요 이번원유회에 삼팔 수표 세우지원이 연합되엿슴에 리순갑선생님은 매우만족해하십니다





사진…우의것은 신문내유치원 아래것은 신명유치원

新明幼稚園

태평통(太平通)이라면 서울의 사오층자리 거루고각이 짝차잇는 거리아닙니까 이동리에 무슨유치원이잇슬라구?무심한행객들은 꿈에도 생각지못햇슬것입니다 그러치만 부민관압헤서잠시 발을멈추고 서쪽을바라볼때 서양옛날이야기에나오는 임금님의 성가튼 고전적건물이 의레건우리의 눈을 끌고말것입니다 여기가 조선성공회 이집너른울안에 우리 신명유치원이 잇습니다 요새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어 대낫제에도 안끼첨이 별로업시 조용한 뜰안에 짝차잇서서 봄이 자욱한것갓습니다 교당바로엽 납작한조선 고옥에서『올갠』소리가들려나옵니다 우리네는 만날듯는 곡조지만 무슨노랜지는 모르나 얘기네들이조와하는 동요겟지요。아 들립니다 얘기네들의 목소리、또 들립니다 손ㅅ벽 장단!。『자 인제 집에갈시간이 되엿서요 집에갈때 길거리에서 한눈팔면 안되여 그럼 래일또만납시다』유치원선생님의 말소리가본데 퍽다정스럽습니다。잠시동안 왁자지걸합니다 신발들을 차저신꼬 다들헤여저가는게지요。그리고 나서는 이성공회안이더한층 고요해진것가태요 서울한복판 이러케조용한데도 잇든가!

천하진미 먹는달팽이

맛은전복맛、기르기도쉽다

불란서요리에 『달팽이』는 썩맛잇는요리로 소문난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는 『달팽이를 먹어?』하고 당장구역질을 하겟지요 회초바레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는 달팽이!

그러치만 최근일본내지에서는 남아메리카에서 먹는 달팽이(食用蝸牛)를 수입하야 그것을기르는법까지 연구발표되엇고、또그것을기르면 유리한가정부업이된다고해서 명고옥(名古屋)지방에서는 달팽이기르는사람이 나날히 느러간다는데 장차로는 일본이 달팽이왕국이 될지도모른다합니다

이먹는 달팽이는 커다락케자라면한개에 무게가 열량중이나나가고 껍질의 기리가 네치가량이나된다고하니 상당히 큰달팽이인것을 알수잇습니다。재미잇는것은 이달팽이란놈은 암컷수컷이 따로잇는것이 아니라 한놈이 암컷수컷이 되어잇습니다즉 자웅양성(雌雄兩性)의 동물입니다。한놈이 알을깔때는 한번에 이백개 내지사백개식 까는데 일년에 사오차레깜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새기를 친다면 굉장한수효가될수잇습니다 달팽이요리ㅅ법은 보통소라조개요리하듯 하면 되다합니다 맛은 꼿전복과가태서 맛도조흐려니와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영양가치가 만허 몸에 퍽보한다나요

기르는법은 굽괴짝이나 다른나무괴짝도 조흔데 그안에 모래와흙을석거 서너치쯤깔고 겨울에는 화씨육십도(華氏六十度)온도를 보존하고 여름에는 한달에 한번쯤 흙을가라주면 됩니다。메기는채소 과일껍데기 고구마등속의 식물성을주고 때때로 계란껍질을 빠어서주면 그만이니까 메기에 별로걱정도업습니다 그리고 갓금 물뿜는기게(비레약뿌리는 기게가튼것이조켓지요—噴霧器)로 그흙을 축여줍니다 수고래야 이만정도밧게안됩니다 그리고 이달팽이는사람을 겁내지안허 손ㅅ바닥에올려노흐면 슬슬 기어다니닛까 애완용으로도 기를만한것이다합니다。

봄의 자연과 생명 ❶

吳淑根

봄은생명(生命)의 봄이요、발육(發育)의 봄이요、약동(躍動)의봄이다。대지(大地)는 터질듯이 숨을쉬고 바다는깁게기지개를켠다。

생명의싹은 바람을조차、모든공간(空間)으로 새여난다。싹이트고、움이돗고、꼿치피고、새가운다。새파란봄、밝안봄이요、또노래의봄이다。춤추는봄이다。

아물아물하든 아지랑이가 나날이 그의파문(波紋)을 뚜려시그려가는대로、종달새는 한치한치식 놉히떠올은다。이아지랑이야말로、분명히 봄생명의『웨이브』다。대지는 파란봄옷을입엇다、모든생물(生物)은그우에 수를노코、아지랑이로『웨이브』를 튼다。

『봄웨이브』 발을될수잇는대로가늘게하되、산(山)과 산의 거리를다붓처서 골(谷)이 잘보이지안케할것입니다。그러고압헤 산보다뒤에 산을 차츰차츰덥게하야 마치 천엽도(千葉桃)의화판(花瓣)이 층층이겹처잇는것처럼 막 피랴는모란봉오리를 위에서드려다보는 형상처럼된면、발라한생긔가 나타나보힙니다。

대체로 머리를 부엽부엽하게하고 착달라붓게하지마십시요。그러고 얼골이긴이는 전후선(前後線)동근이는 좌우선(左右線)으로 트시는것이 어울립니다。

『컬—(捲毛)』 도외출로로쫍들어붓는것보다 역시 중층이로여로고(環)를내십시요。봄은가을 철과달라서 외출『커—른』은 너무상충하야뭡니다。이마가 넓고 얼골이긴이는『커—른』의고를 아래로느리고 그와반대되시는이는고를위로내실것입니다。

×

근년에『홍아리까』다、명랑(明朗)이니하는말이 류행을한다。『홍아리까』한 얼골이라면、바가운얼골 옷음띈얼굴을 가르침이다。첫째로마음이 편안하고 근심이업는이에게서 볼수잇는얼골이다。자연계(自然界)의『홍아리까』한자태는 춘화일난(春和日暖)라고、봄날처럼풍일(風日)심한때도 별로적다。이것역시면치못할 자연계의고민(苦悶)이요 생성(生成)의 대공작(大工作)이다。물을 올리라니 비가오고 꼬츨 피게하랴니 날이호리고。중매(仲媒)를 들랴니 바람이분다。부실부실나리는비 뿌연하게 이는토우(土雨) 끄물끄물하는하늘 이것이 다봄의 오뇌(懊惱)요 우울(憂鬱)이다 이명랑과우울—요새말로『홍아리까』와『멜랑콜리』의느나들이가 꼿자연계의『쇄도—』다。『쇄도—』(shadow)라면 명암(明暗)농담(濃淡)의교섭(交涉)을말한다。조화(調和)요해조(諧調)의표현(表現)이다。근래소위 류선형(流線型)이란것은 직선(直線)과원(圓)의『쇄도—』요 평면(平面)과구형(球形)의『쇄도—』다。

명랑도지나치면권태(倦怠)를 늣기게하고 우울은 이웃이불안하다。다시말하면 고독(孤獨)을등게된다。

×

『아이·쇄도—』(Eye Shadow) 너무 또렷한 눈에 그림자하게 매력(魅力)을 너허주는 효과가잇습니다。눈이 들어간이는 눈조리와 눈구석에 약간칠하고 눈이 나온이는 눈등에 놉혼테다가 칠하십시요 눈이 들어간이가 눈등에 칠을하면 더욱 들어가보입니다。

『뿌—라』는 밤가튼때는 흐물라도 낫에는 그러케 권할것이 못됩니다。

눈섭은 류미(柳眉)라고해서 옛날부터 가는것을 일러왓지만 억지로 가늘게 만들랴고 애쓸것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는 당녀상(唐女相)이나 일본의 옛날경교미인(京美人)이 아닌바에 무슨까닭에 푹가는것만취하게겟습닛가 더군다가 서양사람의립체(立體)로된 얼골과달라서 우리의평면안(平面顔)에는 가는눈섭이얼리지안코 또둥근얼골에는 아조져에맛지안습니다。

눈섭에 검엇칠을 하시라거든 아모조록 엷게칠하시고 또눈이 나온이가 눈섭이가늘고 활등처럼 휘게하면 나온눈이 더불룩하게보입니다。

童話 포수의아들 (四)

金哲洙

소변은 무엇을생각햇는지 번개가티 엇개에메엿든 활을벗겨살을메워가지고 겨례서『왕자님을쏘겟다』하고 만류하는소리도 들은체만체 보름달가티 활을당기여가지고『탁』쏘앗습니다 사람들은 모도눈을감엇습니다 그러나 어머컷겟습니까? 사람들이 눈을떳슬때에는 의미가리활을쓰고 왕자님을 치랴든도적의 군사는 가슴에활살을맛고 그노픈탑우에서 꺽구로 땅우에떨어지지안코 니까?

이것을본 아쪽군사들은 손벽을치며 산이래도 무너질듯이환호햇습니다 그소리에 과절했든 님금님도 정신을차려 탑우를바라보앗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안자잇고 칼을들엇든 왕자님만 홀노 죽은줄만알엇든 도적은보이지안엇습니다 님금님은 의아한눈을 들어 신하들을 바라보앗습니다

그제야 신하들은 모도들 소변의활살에 도적의군사가 탑우에서 땅우에 떨어진 이야이를 님금께하며 소변을 청찬햇습니다

님금도 그말을드더니 그만소변의겨테와서 소변의손을 꽉쥐며 칭찬햇습니다 소연은 더욱더정신을차려 탑우를바라보앗습니다 그랫드니 이번에는 딴놈이 도칼을빼여들고 탑우에나타낫습니다

님금님은 결심햇습니다 왕자님을 살리라면 인제는 항복하는수밧게 더 딴 길이 업는줄을 알엇습니다。그러하야 붓을들엇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쓰라니 그 무지한 도적들에게 한나라의 님금으로 항복한다는것이 첫재 이미 돌아가신 선왕들에게 대할 면목이 업고 둘재 사랑하는 백성에게 천추만대로 원망을 들을것이 생각나며 분하고 원통한 눈물만 주루루 흘러나립니다 손이 떨려 글을 쓸수업섯습니다 그러노라니 『동』첫재북소리는 요란하게 울녀왓습니다。

님금님은 북소리에 놀라 훌호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고 또다시 붓을 들엇습니다。

×

그때 포수의 아들 활잘쏘는 소변은 서울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안음으로 엇진 일인지몰나 활을 메고 아버지를 차저 서울로 떠나왓습니다 그리하야 서울에 들어온 소변은 엇전지 뒤숭숭한 서울의 모양에 그무삼큰일이 난줄을 짐작하고 지나가는사람에게 엇진일인가고물엇습니다 그랫드니 그사람은지금이나라왕자님이 도적의군사에게 붓잡혀 갓는데 인제죽을지 저제죽을지 알수업고 이나라에 활잘쏘기로 제일가는포수도 도적의군사에게 잡혀 지금성가운데가치여 잇다는말을햇습니다。이말을들은 소변은 그만 그 사람의말이 채맛치기도전에 밋친사람과가티 두주먹을 부루쥐고 다름질처슴니다。

소년의 가슴에는 왕자님과 아버지를 구할생각으로 꽉찻습니다 그리하야 도적의성을 향하야 달음질치다가 길가에서 주인을일흔군마가 풀을뜯더먹는것을 붓잡어타고 쏜살가티 도적의 성밋헤 일으엇습니다 그리하야 말에서 나려 님금님의 진속으로 들어갓습니다 그때 또다시『동—』하고 둘재북소리는울녀왓습니다 님금님은 아직까지 항복한다는편지를 다쓰지못하고 잇섯습니다

소변은 님금님압헤 나아가 꿀어업드렷습니다 그랫드니 님금님은 왕소변이냐고 떰니는목소리로 물엇습니다 소변을 신하들도 의아한눈으로 바라보앗습니다

소변은머리를들어 님금님을 울얼어보며

『저는 이나라에 활잘쏘기로 제일가는 포수의 아들인데 님금님을도아 왕자님과 아버지를 구하라고 왓습니다』하고 아조똑똑하게대답햇습니다

이소변의 뜻박게 용맹스런말에 님금님은 크게반가워햇스나 다시생각하니 조고만 어린것이 무슨재조가잇서서 왕자를구할수잇스랴? 님금님의 낫에는 또다시검은 구름이돌앗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홍—제까지것이—』하고 소변을 업수히여엿습니다

그러는사이에 벌서 『동—』하고세번재북소리가 울녀왓습니다 님금님은 마지막북소리를듯고 소스라치게 놀나며 겻헤신하들을바라보앗습니다

미스필립핀

투표에당선된『필립핀』의입루미인들。남양땅에는 감으잡잡한사람만사는줄 아랏스나 미인만은 살결이 백옥가튼것을 이제야알겟지요。(사진에보는바에는)얼골모습이 우리눈에 설다마십시요 민족이다른지라 외양도다를밧게—우리네조상들이 꿈에도생각잔튼 노랑머리、파랑눈이 지금세상에서는 세계미인되는것을 보십시요。필립핀미인도 제고장에서는 현대의서시요 양귀비들입니다 사진은 그미인단일행이 금번 일본구경을왓는데 동경증상사(增上寺)에서 구경하든길의『스냅』입니다。

우리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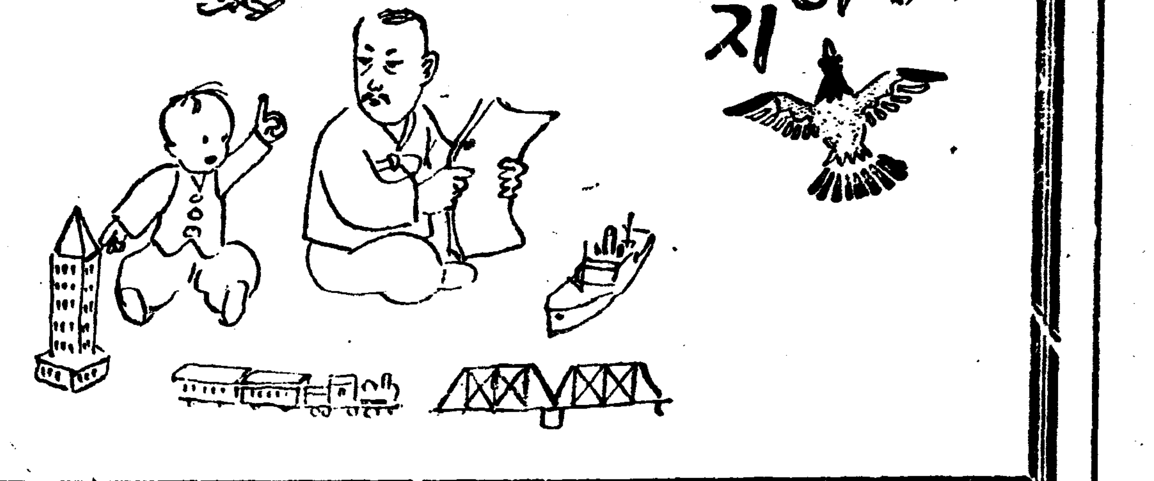
아버지

제가 어른이되거든 보서요。

무엇이든지하지요。

기차도 맨들고、크다란 기선도맨들고、한강철교가튼 큰 다리도노코、소리안나는 비행긔도 맨들어라고 아주 놉흔집도 짓고…이런거 다 맨들줄 알테니요。

(금산사람 윤지연)



학의정가

잇몸에서누른피

問 전금년십칠세에 미혼녀자이온대 작년봄부터 우연히잇몸에서 피가나고 냄새가남니다 어느때는자고나면 벼개에까지 흘늘적이잇습니다 그러고 늘잇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무슨병일가요 조흔약이잇거든 하교하야주십시요 (平壤一女性)

答 잇몸에서 피가나고 냄새가난다하엿스니 틀림업시 당신에병은 치조롱루증(너리병)에초기인듯하오 먼저치석(이똥)을깨끗이 닥거내고 좌긔에약을 하로에 이삼회식 손고락에뭇처서 잇몸을 문지른다음 양치하야보시요 그러고아츰저녁이요 밤에 자기전에 이다는것을 습관하야보시요

라빠노—루	〇、二
네오살발산	〇、三
빠세린	一〇、〇

(세부란스病院齒科 金[illegible])

소변시에고통

問 저는 십구세의 긔혼녀자이온대 소변의분량이 늘며 소변시에는 국부가 심히 압흐고소변후에는 피가 나옴니다 엇더케하면 나흘까요 (鐵原 一女性)

答 오줌길에 염증이 생겨서 그러하오니 다음처방약을 써보십시요 그리고 너머 매운것혹은 짠것은 잡수시지마르십시요

一、ウバウルシ葉煎(八、〇)	一〇〇、〇
ウロトロピン	一、五
臭剝	一、五
苦味丁幾	二、〇
單舍	八、〇

右一日量三回食後分服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錫煥)

일분상관으로 이십개월감형

단일분동안의 시간관계로해서 스무달동안감옥사리할것이 면제되엿다는이야기가 잇습니다『파란』이란나라 그나라의 서울『왈소우』에사는『안돌체·켈라—』라는 사나이는 작년십이월십일날밤ㅅ중에 이웃집에 불을싸지르고서 경찰에 붓들러가 다시법정에서 징역사년의언도를밧엇습니다 그런데 십이월십일일은『파란』국의 신헌법실시기념일으로 십이월십일까지의범죄에 대해서는 특사를 하기로되여『켈러—』의 방화사건이 공교롭게 여기에걸리게되엿습니다 먼저 불을 십일날질럿는지 십일일날 질럿는지 여기에대해서 조사해본즉 증인들은 모다십일일 오전령시에 불이낫다햇습니다 그러고 보면 불을지르는것은 십일오후열한시 오십분 이전이되게됩니다 그래서『켈러—』는 십일날지은죄이니까 감형의 은전을 밧게되여 형기사년중에서 스무달을 제하게된것이랍니다

明暗【十二】

玄卿駿作　金麟經畵

순옥이는 옵바의등에 서서몃번이나 주저하다가 끗내 말을 끄집어내엿다。

『옵바!』

『?……』

관규는 힐끗 돌아다보기만하엿다。

순옥이는 불러노키는 하엿스나 정작 옵바의 얼골과 마조치니 갑작이 마음이 즘하여젓다。

『왜?』

옵바의 편에서 도리혀 못지안코 공연히 불은것가다후회까지 낫다。

그러나 이왕 끄집어 내려든말이라 큰마음을 먹고

『저 할말이 잇서요』

『무슨말이냐?』

『우스면 안돼요』

하고 그는 옵바의얼골을 살짝안젓다。

『웃기는……어서 말해라』

『저어……나두 공장가든데루들어갈수가 잇을까요?』

『그래 너두 정말 가구십흐냐?』

하고 따저뭇엇다。

『가구퍼요』

순옥이는 살멋이 우수며 말햇다。

『녀공생활에 견될수가 잇느냐?』

『그걸 못견대요?』

『그러찬타。녀공이란건 결코쉬운일이 아니다。공연히 긔분에 날뛰여서는 불과몃출에 실패만하고 마는법이다』

관규는 세세히 타일르며 누의동생의 공상을 깨치려하엿다

그러나 똑박게도 순옥의 결심은 강인하엿다。

『옵바 저는 벌서 결심한지가 오랫서요 만약에 제맘이 약해서 마지막까지 견듸지는 못한다하더래두 지금은 먹은맘을 꺽글수가 업서요』

『그러치만 난 녀공생활이란게 어떤것인지 잘 알고잇기때문에……』

『공장이라니?』

하고 반문하는 관규의 두눈은 넘어나 또박게말에 뒤집힐지경이엿다。

『저 제지공장가튼데』

하고 순옥이는 얼골을 붉히며 숙여버렷다。

관규는 오래동안 넘업시 누의동생을 보다가 잘못뒤지나안햇는가하여 은근한 목소리로물엇다。

『아—니 네가 제지공장으로를어가겟단말이지?』

순식이는 처다보지못하고 애꾸진 쫌만 뜨드며 약간 고개를 끗더거렷다。그제야 관규는 알엇다는듯이 저혼자 머리를끗더거리며 누의동생의 쭉 숙인머리를 이윽히 내려다보앗다。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결심을하게된 누의동생의 심경을 꼼꼼히 생각하여보앗다。

『그런데 제지공장으로 갈생각은 어떠한 동긔에서낫느냐?』

『장ㅅ거리에 지금 읍에서 공장십장인지 감독인지 한사람이 녀공모집을 왓다구 학교댕기던 동무들이 야단이얘요』

순옥이는 갓이 고개를 들고 옵바를처다보앗다。

『그래 가는애들이 만흐냐?』

『만쿠말구요。벌서 수물두 더붙엇는데요』

관규는 빨—가케 상긔까지된 누의동생의 얼골을 빤—히 바라보다가

말도 끗나기전에 순옥이는 반박하듯이 갈으챗다。

『그건 아직 옵바는 녀공생활이 괴롭다는것만 알엇지 제마음은 모오는 말슴얘요。그래두 난 옵바만큼 제맘을 알어주시구 찬성하실줄 알엇서요』

순옥의 말소리는 언놀을수업는 흥분에 떨리기까지 하엿다

관규는 더 말치못하고 이슥히 순옥의 얼골만 바라보다가 스르르 눈을 감엇다。

아—모 보잘것업는 일개 온순한 게집애로만 알엇던 누이동생에게 그러한 열과 힘이잇다는것은 정말로 밋기어려운꿈가튼 일이엿다。

그러나 현실은 어듸까지던지 현실이여서 그의압헤는 조금도 꿈이아닌 누의동생의 뜨거운호흡소리가 숨차게 들리고 잇지 안는가?

그는 지금 누의동생이 가겟다는 제지공장에 근무하고잇는 친한 동무를 생각하엿다。모집하려온 감독과 교섭이 업다드래도 그에게 편지만 하면 틀림업시 알선하여 주겟지。그리고 힘자라는데까지는 인간을맨들어 주겟지。그러라 그리로편지하자。

관규는 빙긋—이 우수며 누이동생을 돌아다보앗다。

『정 가겟다면 내가 소개할테니 장ㅅ거리 감독한데로 갈것업시 꼭…

北國通信

國際貿易의代表的巨人 ②

湖岩

商工을 賤視하든 李朝封建時代에도 國境方面에 조그만 貿易市場이 업는바 아니다。西로義州、南에釜山、北에會寧 이三處의 三個所는 高麗 中國、日本 도호의滿洲를 相對로小規模나마 定期的國際貿易을 行하던것이다 그中에도 義州로 말하면 燕京通路의 關門이라 當時唯一의國際貿易品인 朝鮮人蔘이 반드시 이곳을 經由하게되는 關係上 財物이 크게놀아나게되어 富商大賈의 마키론 全國의 웃듬이 되엿다 義州商賈를 灣商이라하야 開港前後 新舊時代의 貿易을 前行하기를 有名하엿고 近世에 外國과交通이 열린뒤에도 어느港口에나 義州사람이 섞기지 안흔데가 업스리만큼 널리 퍼젓다 그네들은 特殊의 온갓素質을 具有하엿슬뿐더러 그活動의 範圍도 거의 全朝鮮的이엿섯다 그런데 내가 여기 말하려는 것은 灣商의 代表人物로 純然한 大實業家인 林尙沃이다。어떤이는 니르되 西에는 三傑이 잇스니 文은 鄭士彥이오 武는 洪景來오 商은 林尙沃 이라한다 그러나 내 淺見에는 安州出生인 僧休靜(西山大師)을 加入하야 關西 四傑이라 하는것이 조흘것갓다 그는 어찌 되엇든지 林尙沃 俗稱林郭山 또는 林靈巫이라면 兒童走卒이 다 알게되엇스며 그生前死後에 奇異한 逸話가 만타 林尙沃은 일즉 燕京에가는 使臣을 따라 人蔘을 만히 가지고 갓더니 中國 商人들이 서로 짜가지고 歇價로 사려하야 一人도 엽신하지 아니 하므로 林尙沃은 妙計를 내여 가지고갓던 人蔘을 장작데미 우에 싸어노코 불을 질럿다 이것을보고 크게 놀랜 中國 商人들은 人蔘을 불가운데서 집어내여 高價를 주고 제각기 다투어서 사가게되니 一擧에 累巨萬金을 博得함에 이르럿다 이러케 巨商의 智略이 富한 天才人으로도 百萬長者가된 그裏面에는 當時與論과 結托하야 多年을두고 人蔘貿易을 거의 독차지하다십피 하엿슴을 보면 언제나 巨富는 政權의 背景이 업시는 出現하지 못하는것임을 알것이다 그러나 林尙沃이 林尙沃이 된 되엿다는 한갓 百萬長者가 되데만잇는것이 아니라 國家나民生의 公益을 爲하야 財産을 全部犧牲한데 그人格이더욱더 빗날것이다 그는 國際貿易의 代表人物로 朝鮮商業史에 重大한位置를 차지할것은 勿論이오 同時에 資金을 잘活用한 朝鮮의카네기임을 알어야 하겟다 나는 大人物이잇슴을 一種 자랑거리로 삼앗다 항상 그故宅을 한번 參觀하기를 願하던바러니 이번에 나는 마침 公의女孫인 林英鮫氏의 好意로 公의 遺蹟과 肖像을 拜觀하게되엇다 同行은 春山李裕龍氏를 비롯하야 나의 從兄까지 四人이 十四日午前九時 新義州驛發의 南行列車를 타고 約二十分만에 白馬에 下車하엿다 日氣가 맑고도 따듯하야 散步하기 조왓스며 坪原의 푸른빗이 새로도다난 春草의 野趣를 겸어갈새 白馬山을 右便에 끼고 잇다금 가느른 시내를 건너고 건너서 한참동안 가고보니 朝鮮里數로 아마 열몇十里쯤되엿가말가 어찌든 山水좋은곳에 八十餘間의 고래등 큰 기와집이 잇는것을 發見하엿다 이것은 말할것도업시 林氏의 舊基이란다 그舊宅은 林氏의 先考이래 세운家舍로 晩年退居하던 村莊이나 最初엔 二百間이나 되던大家이엿던바 어느때엔가 二百間의大家가 와되다하야 百餘間을 毁撤로 毁破하고 그殘存한것이 오늘날보는 이八十餘間의 집이란다 우리는 林英鮫氏의 案內로 집과 山所를 遍覽하고 林尙沃公의日記를 拜見하엿스나 年前에 누가 빌어가고 가저오지 안햇다 고 하므로 우리는 다시 公의行狀을 보여주기를 請하엿더니 行狀을 내여서 보이는데 그內容이 實業에 關한것은 하나도업고 오즉 仗義疏財하던 善行을 말하엿을 뿐이다 實業家가 아니오 儒學者가되고 말앗다 商工을 賤視하던 옛날習俗으로 그러하지 안흘수가 업섯스나 이로해서 國際的 偉大한貿易家의 眞面目을 가리우게된것만은 遺憾이다 우리는 이巨人의 肖像이나마 撮影하기 爲하야 肖像을 가지고 春山과林氏는 다시 新義州로 도라가고 從兄과나는 龍山省墓를 갓섯다。

學藝

엘렌•케이 思想的振幅

—그歿後十週年에際하야—

③ 李軒求

女性觀

愛情—人間的融和가 업는 結婚의文飾을 拒否하는것으하나의原則的事實로 認定한다고 하더래도 現代社會制度의 온갓矛盾相 卽 生活이라는 커다란 難關에서 생기는 不幸과悲劇에對한女史의 思想的立場은 極히抽象的이엇슴은 임이말한바이나 그러라고 女史는 現在資本主義社會에 잇서서의 賃金制度와 그에따르는 生活의 不安과威脅때문에 모든人間의 幸福이라거나 甚至於人間性까지剝奪當하는 事實을 默過한것은 아니엿다 이러한矛盾에對하야 一의義憤을 늣기면서도 그에對한 積極的 態度가『아우그스트•베벨』을 追하야 其他婦人解放運動에 —모든無史的人物로터부터 離脫되지안흔바 女史에對한 攻擊은 一面의眞理와 反面의無理가잇다

오히려 女史의 思想的振幅은 當來할바 또는 必然的인人類社會에잇서서 女性의人間的意義를 闡明함에잇는것이다 그러므로 女史는『스튜아—트•밀』을 爲始한 女權擁護論者中의 한사람이 아니요 眞으로女性擁護論者엿다는거기에 女史의史的存在의 意義가잇는것이다 女史는 女子가 家庭을바리고 모도가 職業戰線에나서는것을 熱烈히 反對한 一人者다。그리하야 米國의有名한 女權論者—기르만夫人과는 對蹠的態度를 取하엿다 女史의有名한 警句—女子들이 女子로서의 權利를찻노라고 議會에서 또는街頭에서 熱狂될때 家庭에서는 어린子女가 餓死와가티 서로싸호고 때리고함몰아니라 그러한 權利平等을찻는데 熱中된 남어지 偉大한『베—토벤』과『와그너』와가튼 數많흔 天才를 一의機械的機關士로맹그는 繁害가생기는것을 어쩌케할것이냐?고 極端論을提唱하야『母性의復興』이라는 著書에서 이思想을 鼓吹하엿다。

이『母性의復興』때문에 女史는 反動的思想家로 非難을 當하게되자 女史는 다시 女性의 人間的特性 卽 女性이 人間으로서 人類文化에對하야 貢獻할바 그本質을究明하엿다 이에依하면 女性이 人類社會에 奉仕하는것은 男子와 同一한權利와主張과 外部的活動에서만 發揮되는것이 아니요 이에對하야 女史는 自己가想像하는바 理想의女人國를 設計하엿다—二十世紀의女性은 社會의生命과藝術과科學에對하야 새로운價值를 賦與함에잇서서 그는 女性의 生來的인本能的直覺的 諸方法으로써이를助長하여간다。그리하야 男性의知識增進에對해서는 靈魂의 哺育으로、男子의 理正的分野에對해서는 直觀的分野로 男子의正義의 實現에對해서는 優雅의實現으로、男子의 勇氣에對하야는 博愛的心性으로서 男子와 同一하게 人類社會를爲하야 功獻하는것이다 이러한 女性은 男子에對하야 偉大한 戀愛를 要求하는同時、男子에게 더 偉大한 戀愛를 賦與하여야된다。따라서 이러한女性은 現在의幸福보다도 더豊富하고도 深厚하며 더永續的인 幸福을 享受하고 남에게 그러한幸福을 賦與하게된다이러한女性은 男性에게 對하야 戀人인 同時 母性이라는 兩大困難을 併行해 나갈수잇는 人生의 幸福을 創造해나가는 一種 宗敎的 努力을 敢行하는 人間이라고 想像하엿다

그리하야 이러한 女性은 自己自身을 完成해가는한便 無限한·靈魂의 魅力으로써 形式과 因襲의 束縛에서 解脫되바 참다운家庭生活을 爲하야 또는 公的 社會的 生活을爲하야 그自尊心과 謙讓의美德으로 새로운 生活을 創造해가는 그속에 堅固한 生命的 리듬(韻律)이잇서 [illegible]와가튼 淸新과 自由를 統一해나가는 까닭에 如何한狂暴과悲哀、幸福속에서도 自身을忘却하지안는바 女性、이女性은 多角의 女性的本質을 所有하는同時 一의 完全한人間—女性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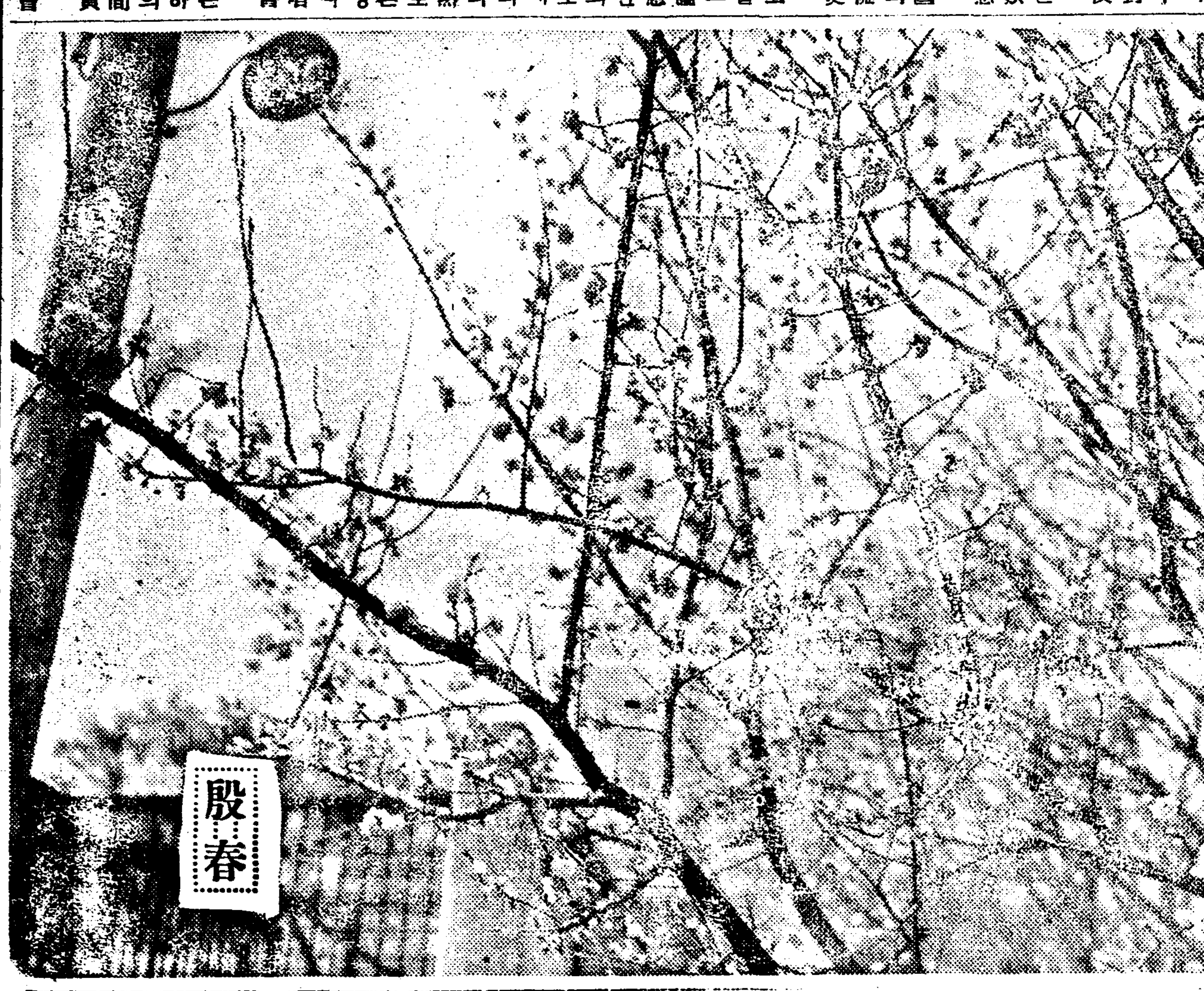
이러한 女史의 女性觀에서吾人은 그思想의 全幅에 입센의『人形의家』가 남겨노흔 나는 안해요 어머니이기前에몬저 人間이 되어야 하겟다는 그思想이 女史에게잇서서더熱烈하게 더眞摯하게 發展되고 高調되엿다는聯關性을 發見하게 되며 가장平易하고도 公正한歸結이다。

×

무릇 吾人이 社會生活에잇서서 要求되는것은 이自覺된人間—男女— 그가 한個의主義로서自己自身을 代辯하기前에 爲先 그가 한個의人間的信念와理解와眞實性으로써 스사로表明되는그것이다。即 完全한人間 그自體다。

이러한 平凡된 見解만으로본다고하더래도『엘렌•케이』女史의業績과 그의思想이 우리—特히女性에게 感銘되는點은 一二에 끈칠것이아니다。새로운未來를準備하는 우리들로써 다시금 女史의 思想의 一端을 咀嚼하는 機會가 베프러지고 베프러저야하기를 企望하면서 實로 簡陳한 이一文을 敢히抄하는바이다。

—一九三六、四、二三日—



殷春

問題의時代性 (一)

—人間探求의現代的意義—

金午星

人間主義! 이것은 今日의 世界的文化現象가운대 가장 顯著한傾向의 하나인듯십다。哲學의 領域에 잇서는 獨逸에잇서 딜타이•막스•쉐—라등에 依하야 開拓되여 가지고 하이데겔•야스벨스等의 實存哲學을거쳐 그完成을 보혀주고잇는 哲學的人間學이 獨逸에서뿐아니라 世界各國의 講壇과 評壇을 支配하는 現狀이며 文學의 領域에 잇서는 佛蘭西에잇서 지—드•프루스트等의 不安文學에 依하야開拓되여 가지고 메르낭데스、마르로等에 依하야 成立되고잇는 行動的人間主義가 昨年六月 巴里에서 開催되엿든 國際作家大會以後 單純히 佛蘭西에서뿐아니라 또한 世界의文壇에 크다란 波紋을 지으면서 主要한潮流를 形成하고잇다。뿐만아니라 宗敎의、領域에잇서서 獨逸의부르나、딸트등의 일은바 危機의 神學등이人間學的으로解釋되고잇슴은勿論東京에서는 佛敎學者등가운대서도 일은바『佛敎의人間學』이主張되여의宗敎를 人間主義的으로 解釋하여 人間存在에對하야 內省的인 態度를 取하는사람들에 依하야 더욱深化 徹底化되고 잇는듯십다。이러한 現象에빗치여서 우리는 現代文化의 主要한 特徵을 人間主義的이라고 規定지을수도 잇스리라 및 그러면 이러한 人間主義的傾向은 어떠한根據미테서 나타나는것이며 또지금 어떠한傾向을 가지고 發展되면서 잇는가?。

헤—겔의 말을빌면 思想이나 文化는 時代의 아들이다。하나 그것은 思想이나 文化가 單純히 時代의 反映인 意味에서만이 아니요 그것이 그時代의生活인 人間들의 自己表現이며 精神的 呼吸에서이다。그러므로 만일 今日의 人間主義가 現代文化의 主流가 되여잇다면 그것은 반듯이 今日의 時代的現實과 現代人間의 生存態度와 그들의 精神的狀況에根據한것이 아니면 안될것이다。

이제 여긔에對한 具體的解明은 本文의 全部에서만 되려니와 우리는 爲先 論議의 進展을 爲하야 端的으로 아래와가티 말할수잇다。現代社會에 잇서 人間의 自己疎外속 客觀性에 依한 束縛으로 因한 社會的인

人生存의 危機

人間的存在의 危機를 超克하려는 自覺的인 人間層의 새로운 生存態度、支配的 이데오로기—이든 主觀主義의 支配力의 喪失、主觀主義의 非創造性의 暴露、이러한 一系列의 事實이 今日의 人間主義的 傾向을 만드려내는 現實的根據라할것이다。그러타고하면 人間主義는 確實히 現實의 危機와 混亂속에서 그것을 超克하고 明日의 人類를 建設하려는 世界的使命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할수잇다。그럿에不拘하고 人間主義는 아직 一部의 苛酷한 非難을밧고잇다。하나 그것은 非難者의故意에서 보담 오히려 今日의 人間主義의 迷惑에 그責任이 잇다고 할것이다。『어떤時代에 잇서도 人間의 本質과 起源에잇서 우리時代以上으로 不確實하며 曖昧하며 또多樣인때는 업섯다』哲學的人間學의 主張者인 막스•쉐라는 말하엿다 그럿타。

今日과가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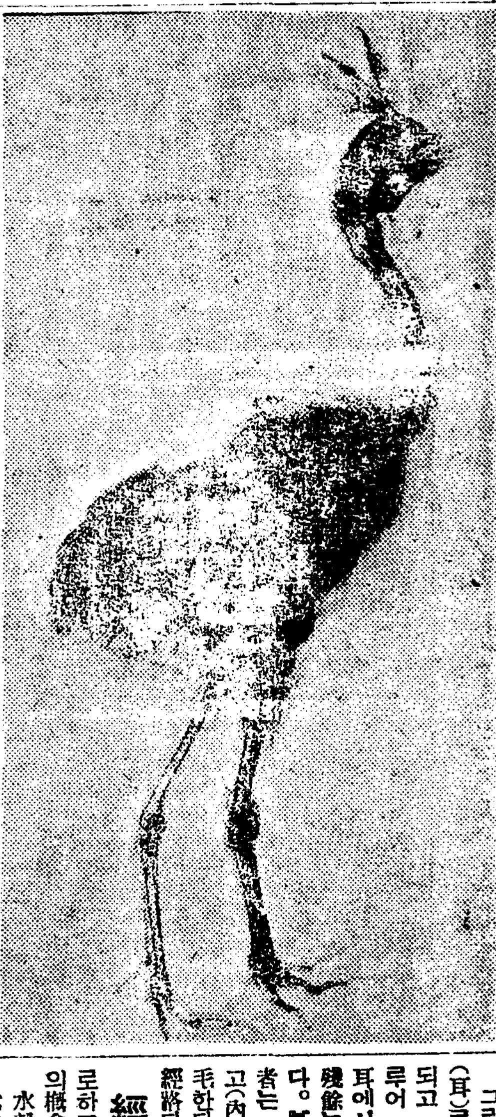
人間探求가 盛行되는때는 업섯슬것이다 하나 또한 今日처럼 人間問題에 잇서 曖昧와 混亂을 보혀준때도 업섯을것이다 아제 이人間主義의 迷蒙과 混亂狀에 對하야는 압흐로具體的으로 指摘하려니와 이러한現象은무엇보담 今日의 社會現實의 混亂에서 由來되는 것이며 人間主義가 世界史的使命을 自覺하는 人間層에 依하야 具體的으로 把握되지 못하는까닭이라고 생각키운다。

再建하려는 傾向이 濃厚하다。

그바 經驗科學(自然科學 및 社會科學)에서까지 人間主義的 새로운解釋이 提起되고잇는 現狀이다。

이땅에 잇서도 數三年前 文壇에서 白鐵氏에 依하야 "人間描寫論"이 提唱된뒤로 얼마동안은 그것이 어떤 危險한것처럼 異端視되여 왓스나 昨今兩年以來로 다시 人間探求問題가 文壇人들의 主要한 關心處가되여 이에對한 論議가 잇서오는中이며 近者에는 우리젊은 哲學徒들에 依해서도 人間問題가 盛히 論議되고 잇다

人間探求의 傾向은 이와가티 人間學·또는 人間主義등을 表面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에게서 뿐아니라 大戰以後 일은바 客觀的行爲、客觀的認識등에 幻滅을 늣기고 그行爲와認識의 主體인 人間存在에對하야 內省的



眞=寫=線=『렌=트=겐』

이험상구진 標本갓흔것은 『렌트겐』線寫眞으로 社鷄를 撮影한것이다。그리고 線의 圓圈갓흔것도 亦是『렌트겐』線寫眞인데 眞部의 白點은 空氣가 드러잇는 浮袋이다

作品의誠實性問題

…文…學…閑…談…集… ⑥

白鐵

『내가 觀察한데 依하면 人間을 가장價値잇게하고 가장品位잇게하는 完全한 誠實性은不斷하면서도 너무 過激지안흔 努力과 極히 明確한 疑視 와 밋가장놉키라운 謙虛에依하야 비로소 體驗하는것이다!』라고『지이드』는 말하고 잇스나 그完全한 誠實性이라는 것은 人間을 價値잇게하며品位잇게할뿐아니라 아니人間의問題인때문에同時에 그것은 文學을 가장價値잇게하며 品位잇게 한다!고생각하게된다! 事實 한作品에 잇서그가운데 나타나잇는 作家의 淸廉하고 眞摯하고 潔白하고 무엇보다도 全人格을가지고 肉迫하는 그誠實性만치 貴해보이는精神은업다!

近年에 東京文壇의 어느作家들은 그들의 書信가운데서 文學을하는것은 困城을 攻取하는 것보다 困難하다든가 天下를平定하는것보다 어렵다!든가를말하는것이 잇섯스나 그例比가비록 適切한것이아니라고 하더라도 何如튼 그것은 文學이 어느 程度로 困難한것이라는것은 充分히 說明하고잇다! 고보혀진다 여기서 우리들이文學에 잇서서 誠實性이 貴한 精神이라는것은 그困難莫大한事業을 攻取하는 過程에 表現되는 嚴肅하고 悽慘하고

切實

한努力 難攻의 城壁을 陷落하기위하야 全生命을 내던지고 攻迫하는 그兵士의 氣勢와 心情의 悲切한것이 여기에잇는까닭이다 文學이 그의主要精神으로 삼고잇는것은 眞理를 探求햇다!든가 或은 眞理를 探求할可能性이잇다든가?하는것을 늣길때에 오는 그自足과 滿足感이아니고 純全히 그眞理를 探求하기위하야 努力하는 그誠實性과 切實味! 오직거기에만 잇는것이다! 그러기에 어떤文學者는 說破하고잇다『自己를完成하는것은 眞理의把握에 依한것이 아니고 眞理의探求에依한것이다!』라고 文學者는 事實 容易하게 眞理를 把握하는것도 아니고 把握할수도업는것이오 오직 그 探求를위하야 絶對의努力과誠實을다하는 곳에 오히려 眞理가잇고 또한 文學의 커달한 精神이잇는것이다! 그러기에 그文學者의 말과가티 萬一에神이 오른손에 眞理를쥐고 외인손에는 眞理에對한 無限한渴望을쥐고서 그選擇을 命令한다면 말할것도 업시文學者는自進하야 後者를取하여야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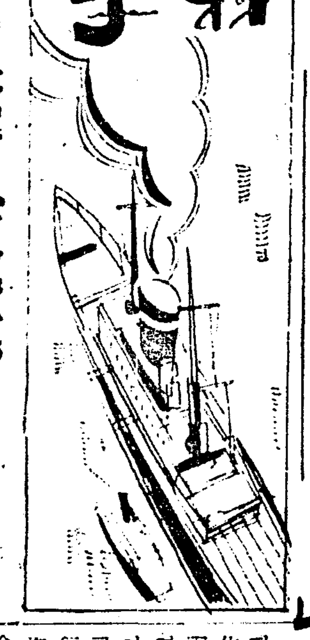
文學

은 無限한 渴望을가지고 不斷의努力으로 眞理를追求하는것이다 그追求와 努力에는 絶對의 誠實性이 貴重하고 必要한것이다! 또한그럼으로 誠實性問題와關聯하야 文學이 極히困難하다는 것도 그困難한점은 眞理의把握如何에 잇는것이아니고 그作家가 그困難한것을 攻取하는데 必要한 그誠實性을 保持할수잇는가 업는가에 걸려잇다고 理解된다! 事實 作家가 誠實性을 保持하는가 못하는가는 언제나 커달한困難과 努力과 訓鍊과 自己犧牲의意味를 同伴하야서만 理解되는問題다! 여기에 한作家가 自己創作에對하야『나는 그作品에 全力을 다하얏다!』는 作家로서의誠意를 表하는 意味만으로는 決코 이誠實性은 理解하기어려우리라고생각된다! 그것은 단순한 그때그때의 誠意와全力에 머저진것이 아니고 作家生活의 모든努力이累積된 全生涯的全人格的意味를 同伴하고 잇는問題다! 이것은 몬저 지이드의 文句와가티『不斷하면서도 너무 過激지안흔 努力과 極히 明確한疑視』에 依하야만

體得

하는 精神일까? 말할것도업시 作家에잇서는 가장貴한 精神인동시에 가장 獲得하기 困難한것이 아닐수 업다 그러기에 지이드는 다시나가서 作品의具體的過程에대하야 다음과가티 說明하고잇다『쓰기시작하고나서 제일 困難한것이 誠實이라는것이다! 이問題를 吟味하야 藝術上의 誠實性 이란 무엇인가 를 定義하려고 한다!』고하면서 그는 誠實을 思想과 形式문제를 關聯식혀말하는듯하다『어떤일이잇서도 言語가 思想보다 몬저와서는안된다! 말하면 言語는 언제나 思想에依하야 必然的으로同伴되지안흐면 아니된다! 言語와思想사이에는아무間隙도 許諾해서는不可하다! 이것은 한文章에서나 作品全體에잇서도 同一한問題다!또한藝術家의 全生活에의 意味에서는 藝術家란 天職이 不可抵抗的! 이여야할것、그는 쓰지안흘수업서서 쓰게되는것이여야한다는것이다 徹頭徹尾 誠實하여야한다!』고 別로 그의말가운데 新奇한 眞理를 우리들이 發見할수 업스나 이平凡한듯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들은 지이드의 誠實性 잇는 告白을 들을수잇지 안흘까?

科學



四象醫學說批判

◇그理論과實際에關하야◇

⑧ 李乙浩

肺의系統

이系統은 水穀溫氣의通路라할수잇다。胃中의熱氣中에 輕淸者만 上升하야 胃脘에와서溫氣가 맨처음엉들드되는곳이다。『溫氣는 自胃脘而化津하야 入于舌下하다』하엿스니 溫氣는벌서 胃脘에서 津으로 變한다는뜻이다。舌下란 唾腺이요 津이란 唾液의 總括的述語가아닐가

舌 下에서 津은 津海를 이루나니 津海는津의집이라하엿다。바다는 물의모되는곳이다。津海란 津의湖水란뜻이겟지、『津海之淸氣—出于耳而爲神하고 入于頭腦而爲膩海니 膩海者는 神之所舍也』라고 여긔서神이란 無形而有用한 一種靈氣로解釋되다。귀의聽力을뜻함이아닐가 聽力을 耳神經의 한機能으로만 보는것은 電氣를傳達하는 鐵線을 이야기할때 電氣의 存在를 無視하는것과 恰似한說謗다 鐵線은 電氣를傳達시키는 仲介者이드시 耳神經은 神力(聽力)을 傳達하는鐵線과갓다할것이다。

그러므로 津海의淸氣中에 귀(耳)로나온者는 神이되여 消費되고 入于頭腦한者는 膩海를이루어 神의 宿所가되다하엿스니 耳에서 消費되고남는 神의 餘는 頭腦에貯藏된다는듯이것다。膩海中에잇는 膩汁의 맑은者는 안으로도라와서 肺에이르고(內歸于肺)濁滓만흔 外歸于皮毛한다하엿다、以上이溫氣의精變經路다。그러므로 이

經 路를좃차 胃脘 舌下 耳 頭腦 皮毛 肺의 系統을 로하고 이들俗率들로터부러 肺의槪念은 構成되는것이다。

水穀溫氣自胃脘而化津入于舌下爲津海津海者津之所舍也津海之淸氣出于耳而爲神入于頭腦而爲膩海膩海者神之所舍也膩海之膩汁淸者內歸于肺濁滓者外歸于皮毛故胃脘與舌耳頭腦皮毛皆肺之黨也

脾의系統

이系統은 水穀熱氣의 系統이다。水穀의熱氣는 胃에서 膂로化해가지고 두젓가슴사히(膻間兩乳)로드러가선 膂海를이룬다하엿다 膂海란 乳腺을가르킨말이아닐가! 膂海의淸한者는 눈으로나와서 氣가되고(出于目而爲氣)등성마루(背膂)로 드러가선 膜海를 이루나니 膜海는 氣의宿舍다。여긔에 氣는 神에서와가티 眼力의原動力이아닐가! 膜海의 膜汁淸者는 脾로드러오고 濁滓者는 근으로나가나니

脾 의 系統에서와가티 胃 兩乳 目 背膂 근은다—脾의範圍이라하여 脾의槪念을構成한다(原文略)

여긔서 一言할것은 舊醫學에선 五行과五臟과의關係를 論할때 脾를 土라하고 心을 火라하엿지만 그것을잘못이다。熱氣의系列인 脾를火로잡고 心은中央의太極이니 곳土가되여야할것이아닌가。(仔細한說明은 四象論과 五行說과의關係를 論할때이야기하기로한다)

肝의系統

이系統은 涼氣의系列이니 水穀의涼氣는 小腸에서부러 油로化해가지고 뱃곱(臍)으로 드러가선 油海를이룬다하엿다 油海란 膵腹部를 中心으로한槪念이니 그形狀과範圍를찻기가 困難하다 油海의淸氣는 出于鼻而爲血이라하엿스니 血이란 神 氣의槪念과가티 嗅覺의原動力가아닌가 血이란 單純히 血液(피)을 意味한것은아닐것이다 血은 腰脊으로드러가서 血海를이루나니

血 海란 血의所舍인것은勿論이다 血海之血汁淸者—안으로는 肝으로들고 濁滓는 肉의根本이되므로 小腸 臍 鼻 腰脊 肉은 다—肝의槪念을構成하는要素들이다

腎의系列

腎의系列은 寒氣의系統이니 水穀의寒氣는 大腸에서 液으로化하야 入于前陰毛際之內하야 液海를이룬다하엿스니 液이란 氣液의 그液體의槪念과는 좀다르다。液海는 불두덩의部位이니 膀胱을차고잇는곳이다。液海의精氣는 出于口而爲精이라하고 入于膀胱而爲精海라하얏다 精海는 腎의根本이니 精力이조타는말은 곳精氣가 조타는뜻이요 일흔이가 氣運도세다는 俗語도 以上의뜻을 彷彿하게하는듯하다。귀운조흔이는 飮食도잘먹드루나니 精이란 口味의 原動力이 또한아닐가 精海의 精汁淸者는 腎의根本이되고 濁滓는 骨으로드러가서 腎의根本이되나니 大腸 前陰 口 膀胱 骨은 다—腎의眷率들로腎이와가튼槪念을構成하는者들이다。

四 象人의臟腑를 의四氣로서 說明한다면 寒熱溫涼 太陽人은 肺大肝小이니 溫盛涼衰의臟腑로 溫臟腑라할수잇고 少陽人은 脾大腎小하니 熱盛寒衰이라 熱臟腑라할수잇고 太陰人은 太陽人의反對로 凉盛溫衰이니 凉臟腑요 少陰人은 少陽人과反對니 寒盛熱衰라 寒臟腑라할수잇다。

以上의關係를 左에表記한다。

四象類型	臟腑	四氣	臟腑別稱
太陽人	肺大肝小	溫盛涼衰	溫臟腑
少陽人	脾大腎小	熱盛寒衰	熱 〃
太陰人	肝大肺小	凉盛溫衰	凉 〃
少陰人	腎大脾小	寒盛熱衰	寒 〃

科學雜錄

◎電流應用新診斷法

【캠브릿지(마사추셋쓰州)發電信】人體에電流를 通해서 病의 診斷을 行하는新法이 마사추셋쓰州 人體構造學會에서 發表되엿다。電流가通하지안는 體節內에 保留되여잇는精力과 電流를通한結果 일허버린精力과를 測定하는데 따라서病의 性質을 判斷한다고 하는것이 이新診斷法의 骨子이다。發明者는 와•덴•호—른博士로서 同博士는 電流에依하야 蓄積되는筋肉의 精力의消長이 簡單히 다이얄에 나타나는 裝置까지完成하엿다 이裝置는 病患의 局所에대임 必要가업시 皮膚上에 裝置해서 體內의病源을 探知하는것이다 二十六人의 健康한 看護婦에 試用한結果 各個人에對해서 電能力에 差異가잇고 그指數는六十九至 九十으로 나타낫는데 病人을 測定하기를 二十乃至百二十까지。그사이에 非常한指數의 昇降이잇서 浮腫、甲狀腺異狀이 잇는것은 指數는 百廿以上에올랏다고한다。

免疫性의原理 (上)

全在祿

요사이 봄이되여서 날세가차차 다사해지면 各種의 傳染病이 流行하게되다。그럼으로 여러가지 豫防注射가 숨은것도 施行하고잇지마는 이와 關聯잇는 免疫性問題를 吟味해보는것도 興味잇는일일줄로안다。

사람이나 動物의身體는 各各病原性微生物의 侵入에 對해서 多少의 抵抗力이잇다。그럼으로 假令 非病原性菌을 人體나 動物의 體內에 注射해도 거긔에서 곳 發育增殖하는것이아니고 그菌은 때를따라서 絶滅되는것이다。그러나 다시 그非病原性菌을 一片에 附着식히면 그場所에서 작고 發育增殖해서 맛친내肉片의 腐敗作用을 이르키는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事實로서 生體는 非病原性菌에對해서 抵抗力이잇다는것을 짐작할수잇는것이다。假令 病原性菌이라고하드래도 그것을 身體內에 注入식혀서 發病케하자면 一定以上의 菌數量을 要하는것이니 萬若 菌數量이 一定한限定에 達하지못하면 아모리 그것이 病原菌이라고하드래도 身體의 抵抗力을 익이지못해서 맛친내 發病하지못하고 도리혀 病原菌이 自滅하지아니하면안되게되는것이다。이것을 다시말하면 疾病의 最初에는 身體의 防備作用과 病原菌과의 交戰으로서 前者가 勝利하면 發病하지안코 맛치는것이고 後者가 優勢일때는 身體의 防備作用을 攻破하고서 病原菌은 體內에 發育增殖해서 맛친내疾病을 惹起하는것이다。그래서病原菌의 이러한 發病作用能力을 一般으로 菌力이라고하는데 病原菌이 體內에 드러가서 發病을식히자면 어느一定한 菌力과 또한 어느 一定한 數量에 達한 菌數量이 必要한것이다。

그러나 菌力이나 菌數量이다 함께 어느 一定한 限度에이르럿다고하드래도 動物體가 免疫性을 가지고잇슬때는 全然 發病하기가 不可能한것이다。

이 免疫性이라는것은 여러가지 種類로난하서 생각할수잇는것이니 엇더한 사람이나 動物에게는 病原性이 잇는 微生物일지라도 다른動物에 對해서는 全然 病原性을 發揮하지못할때가잇스니 假令『지브스』菌은 사람에게만 發病性이 잇는것이고 豚『고레라』는 사람에게 對해서는 조곰도 病原性을 가지지못하는것이다。이러케 動物種屬의 特有한 免疫性도 잇지마는 同種屬의 動物이나 사람사이에도 어떤 疾病에잇서서는 免疫性의 差異가잇는것이다。

以上은 自然的」先天的免疫性에對한 考察이나 免疫性에는 오히려 後天的인것도잇다。이것은 한번 疾病에 걸녀經驗이잇스니 그疫病에對해서는 免疫性을엇는 것이 이것이니 假令 天然痘나 痲疹가튼것에、걸니일이 잇스면 이病에對해서 免疫性이생기는것이다。그리고 또한 그疾病에걸니지안코도 人工的 適當한 方法으로 豫防接種을해서 自働的免疫法을 施行하는데 따라 免疫性을 享受하게하는수도잇스니 이것은 天然痘에對한 種痘法、狂犬病의 豫防接種法『지브스』의 豫防接種等이다。

그러나 이와가튼 自働的免疫에 對해서 所謂 他働的免疫法이라고하는것이 잇스니 그것은 例를들면 디프테리아에 걸닌 患者에게 디프테리아 免疫血淸을 注射하야 말하면 디프테리아 抗毒素를 含有한 血淸을 注射하며 또는 디프테리아 豫防을 爲하야 [illegible] 他働的免疫을 [illegible] 라고하는것이다。

그리고『지프테리아』[illegible]

讀者社交室

◀普文合格으로도 專門學校受驗資格이 되는지요? 알으시는분이게시면 本欄으로 通知하야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黃、沙、貫) (沙里院景岩里 李昌甲)

◀韓在衡兄! 이러케나는저—김버서 볼넛슬때엔 感慨無量할 뿐이오니……나는아—모말도 못하겟습니다。다못 나는 兄이 發表하시겟다는『어머니』의 모델이라하면 압으지을밋고 現住所를 이社交室에서 곽알여주시기 바라나이다 湖南 眞 鐵

◀姜春植氏께 先生님의住所를 速히紙上으로알여주시면 곳차저 뵈옵겟나이다 (08生)

◀讀者諸氏에게 問議하오니누구시던지 알려주시기를바랍니다 開城府內 靑年籠球團이 有하오면 그住所를 葉書로直接通知하소서 開城府高麗町一九一番地閔에게로

◀聚樂家諸先生님께 告하나이다 聚樂을專門으로 研究코저하난대 提琴을 求하는때문에 목이구터지는 모양가트니 提琴을 寄附하는 것이 치안흘까요? 此點에對하여 社交室을 通하여 알려주시면 萬萬感謝를表하겟나니다 (一讀者海松)

◀朝鮮靑年記者들 사랑하시는 文士諸賢이며? 小生은一年前부터 文學方面에 뜻을두고 지나오든 今年卄歲인 中學二年程度修業한 無名靑年이외다 希望은 只今부터 上京하야 어느先生이든지指導해주시는대로 나갈아오니 依支할곳업는 靑年을 사랑하시는先生님은 雜誌社가튼데 通知하야주시옵소서 文士宅書生가튼것을 願하오니 指導잇기를 下記住所에 기다리오니 住所로 通知하시압 姓名도? 陰城邑 金鼎淳生

◀明治四十四年陰五月二十三日은 陽曆으로 何日에 該當하난지 못사오니 아시는분은 本社讀者社交室을 通하여서 下教하시옵소서 慶南密陽邑內 一讀者

◀음력으로 大正四年正月十七日은 陽曆으로는 何月何日이오며 太歲、月建、日辰、亥時는무슨亥時온지 要求博士께 仰問이오니 下教하시와 주심을此社交室로伏願하나이다 長箭 要求生

新刊紹介

◀예수 四月號 發行所 平壤府下水口里九〇 中央宣道院 振替京城一二三六五番 定價十二錢(送料並)

◀復興文藝 四月號 第二文藝讀美號 發行所 東京市杉並區馬橋內一丁目一五八 ムサシノ社 振替東京八二八〇番 定價廿錢

◀朝鮮銀行統計月報 一月分 京城府大門通三丁目一一〇 朝鮮銀行發行 定價五十錢

◀童話時代 第二十八號 發行所 東京市澁谷町區上通三ノ五〇 童話時代社 振替東京四二四八二番 定價十錢

◀한글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花洞町一二九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定價七錢

◀基督敎報 第五十二號(週刊)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一一五九〇番 定價五錢

◀四海公論 一週年紀念大特輯號 五月號 主要目次 新文化建設의길 申南澈 孔米會議와米國 高永煥 佛蘇協定과獨逸의第二 操彈 徐椿 世界勞働運動의現狀 李克魯 朝鮮語文運動의現狀 李英哲 新聞連載小說 谷間의情緖 張赫宙 花心 方仁根 大魚 沈熏 人生의香氣 李光洙 京城府竹添町一丁目十番地 四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六 定價十錢

連載野談

布衆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불단금가락지(一)

신라(新羅)진평대왕(眞平大王)은 옥체가 장대하시고 천성이 총명하시거니와 특히 그품성이 지극히 어지시고 또는 지극히 영준하사 만긔(萬機)를 총괄하시되 반드시 은덕을 압세우시고 위엄을 뒤로하시며 신민을 부리시되 반드시 상과 벌을 살피시니 나라의 긔강(紀綱)이 엄연하고 려항의 민속이 아름다웟다.

더구나 대왕은 노이부(弩里夫)、수을부(首乙夫)、룡수(龍首)、김춘추(金春秋)와 가튼 문신에게는 이이손(以伊飡)이라는 놉흔 벼슬을주사 내정(內政)과 국교(國交)를 맥기시고 룡춘(龍春)、후직(后稷)、김유신(金庾信)과가튼 무신에게는 장군의 칭호를 주사 군무를 맥기섯스며 또한편으로 지명(智明)、원각(圓覺)、융천(融天)과 가튼 놉흔 도승에게는 국사(國師)의 례우(禮遇)를 주사 황룡사(皇龍寺)와삼랑사(三郎寺)와 가튼 큰 절에서 나라와 백성의 복과 안녕을 때때로 발원케하사 국태민안(國泰民安)에 힘을 쓰섯다.

그래서 나라사람들은 혹은 손으로 부른 배를 문지르기도하고 혹은 호미끗으로 기름진 흙뎅이를 깨기도하며 별노래(彗星歌)를 불러 대왕의 성덕을칭송하니 이 별노래는 국사융천이 지은것 으로서 조선 향가(鄕歌)중에 가장 오랜 노래다.

대왕의 성덕은 다만 신라사람만이 칭송하는것뿐아니다。그밝게 괴이한 봉오리가 구름바게 솟고 울창한 숲림의 천지마엽이 너울거리는 긴흰 산봉작이에서 뛰지도하고 다름질도하는 길짐생의 궁둥이가 투실、투실 살이 찐것이며 또는 구룽과 안개가 첩신 거치고 일망이 명랑한 놉고 넓흔 공중에 훨훨 날느는 날짐생의 깃이、번질、번질 기름진것도 모두 대왕의 성덕이 밋친것이라하얏다.

그런데 대왕은 매양 룡안에 근심하시는 빗이 떠나실사이가업스섯다。특히 봄을 당하시면 봄마지의 수심이 더욱 새로우시고 가을을 당하시면 가을마지의 수심이 더욱 새로우신것 갓다.

대왕은 이러한 수심을 바귀는 절긔마다 새로운 수심을 자어내시는중에 또한 이월영등절을 당하섯다.

이날에 대왕은 문무제신을 인솔하시고 시조신사(始祖神祠)에 거동하사 친히 영등대제를 거행하시게되엇다.

신사 제탁(祭卓)에는 오곡(五穀)과 륙축(六畜)과백과(百果)등 생제물(生祭物)을 배설한것이 정연도하려니와 향로에서 타올으는 희색연긔의 냄새가 그윽히 향긔로웟다.

독축관(讀祝官)이 축문을 다 읽자 대왕은 다시 국궁사배하신후 제탁압헤 업드시여 통곡하시는것이 이상하야 처음에는 여러 문무제신은 대왕이 통곡하시는것이 이상하야 처음에는 다만 어리둥절 하엿슬뿐이다.

그러나 대왕의 통곡하시는 소리가 점점 목이 메어가시는것을 듯든 여러신하들까지 두눈에 눈물이 맺기 시작하얏다.

그리다가 여러 신하들도 필경은 대왕을 따라 크게 우름소리가 터저 나왓다。

대왕은 통곡하시는것이 분명이 어떤 회포가 계선 통곡이 엇스나 여러신하가 통곡하는것은 아무 까닭을 몰으는 통곡이엇다.

여러 신하가 대왕을 뫼시 때에 어린아이가 맛치 어머니가 울때에 어린아이가 뚜어 우는것과 가텃다.

대왕께서 한참 서럽게 통곡하시는때!。

이때에 맑엇든 하날에 거문구름이 일시에 뭉텅이며 우뢰소리는 우르룽、번개불은 번쩍、천지가 문허지는듯하드니 남테업는 벌둥이 쏘낙비오듯이 쏘다진다。

「천변(天變)!。천변!」하는 아우성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닌다.

이때 대왕의 룡안은 점점 거문빗으로 질니시며 제탁압헤 업드시어신채로 긔동이되시엿다.

여러 신하들은 대왕의 옥체를 옹위하야 궁으로 환어하시게 하얏다。이에 여러 신하들은 다시 대왕께서 무슨까닭으로 통곡을 하시다가 긔한까지하신것을 생각하얏다.

그리고 시조신사에서 대왕이 곡을 발하실때에 대왕이 벽력을 맛으신것은 중대로 전례가 업는 것을 생각하얏다.

신하들은 이외가티 여러가지의 생각을 세이질하며 대왕의 긔색을 공순히 살핀다。

대왕은 여전히 긔식이 잣기사 숨쉬시는 소리까지 더욱 떠욱 약하게 들닌다。

「신사에서 벽력을 마저섯다!」하는 고약한 소문까지 려항에 돌니게되엇다.

여러백성들은 매우 몹쏙한긔색으로서 수군거린다。

曆 五月一日(金) 陰三月十日 ●立夏五月六日(第十六日)

演藝娛樂

畵面의天候는自由自在 雨師風伯無所用

白雪은밀껍질 ◇…실업슨雲霧도보일랏

눈은 흰 조히조각을 쓰게됨니다。그것도 形態가 三角으로 된 것은 떨어지는 모냥이 처량하지만은 아모래키나 된것은 합부로 떨어저서 재미가 적다.

요사이 영화에서는 조히보담도 밀가루이를 만히 쓰게되다 단지 그것이 넘어 다르면 가루 눈이되야 버리고 넘어 저즈면 덩이눈이 되야 버리기때문으로 濕度를 마치는것이 힘든다。그것을 가는 鐵網에 너허서 작대이에 피어들고 뿌리는 것을 보고서는 失笑할는지 모르나 畵面에 나타나는 것을볼 때에는 한눈이 옷에 뿌리어 自근조차 淸爽한氣分을 가지지안나?

모던風伯 실상은푸로페라

푸로페라가 잇스니까 바람은 본래 문제가 업다。푸로페라만 들어 대면 東風 南風 北風 西風어느바람이고 다 불어들어온다。그러나 바람의 强弱을 어떠케 하랴고요? 그것도 無用의 걱정입니다。푸로페라를 돌리는 모타에다가 가끔가끔전류를끈엇다 통햇다하기만 하면風速은 얼마든지 自由로됩니다。

안개도任意로

映畵中의 안개로는 黃色 白色 黑色 三種의 연긔의 스목 色이 잇다。그것을·스레지(火花)안에서 피우고 適宜한 光線으로 비치면 고만이다 매우煙氣에俳優들은 고생이지만은 아조天然의 안개 그대로 속는것만 이 고마운 일이다。단지 스목을 넘우 만히 피우다가 고만 청숭가지를 때는 부억과 가리연긔가 자욱하야 寫眞을 버릴수가 업슬 것이라 그것이 큰 탈이다。어느때 撮影로 그럼이 잇서서 監督 俳優 總出動으로 부채며 널반지ㅅ조각을들고 나서서 안개를모바그로 쫓차 내느라고 한참야단을 처게 되야섯다。안개를 자유로 맨들고 또 자유로 거더버리는 점에 잇서서는 영화인도 한는님만 못지 안하폭이다。

人造雨 거긔도技術이必要

비가올하늘에서만 나려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잘 못된 생각이다。땅에서 한번올라가서 다시 나려 오는 비도 잇다 그러라고 모든비가 大洋의 水蒸氣로서 이루어 진다는 그것을 가르친는나하면 決코아니다。水道나 우물물을 끄어가지고 비상아 뿌리어 주는映畵의 비야말로 稀貴한비다。뿔푸를 가지고서 하지만은 좀노픈 고데서 조로로도한다。혹은 비 오는 신만을 백이는세트를 맨들어 가지고 天井에다 全部구녁을 뚤코 그엽프로 왕크를맨들어 스위치하나 비가 오고 끄치게 하기도 한다。그러나 그런것은 經費問題라 大槪는 조로나 뿔푸인데 그것은도技術이問題다。그저물을 뿌리면될것 갓지만은 실상 그러케안되는것이 다。그래 雨量로 아조짧히다니면서 버리를 하는사람도 엇지 안한 모양이다

저편은 小兒役으로 世界의 재롱을 한몸에모으든자키、쿠간이 어느듯 커서 이제는戀愛까지 하게되얏다고 이편은 작오키氏가 新婚夫婦로 新婚에旅行을와서 남의耳目을 끄을고잇다

巧妙한映畵트릭 寫眞의合成術

붉은 瑠璃版을 通하야 붉은 잉크로 쓴 글자를 내다 보면 아모것도 보이지안는다。瑠璃비치 좀 엷을때는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아조 진할때는 暗으로 안보인다。그러나 붉은 瑠璃대신으로 푸른瑠璃를通하야보라。글자가검게 또렷이보이지를 안나?

이러한것을 利用해서 寫眞두장을 合해가지고 한장으로 맨들수 잇다。映畵上으로 이와가튼 트릭을 처음 쓰기는 米國의로비·포메로이라는 사람이다。一九二八年 그는 特許를 어더가지고 모든 映畵會社의 寫眞을 引受해다가 自己撮影場에서 백이기로 하얏다。지금은 포메로이의 方法을 多少고치어 여러가지로 各處에서 直接백이고잇다。

그전가트면 室內의窓으로 내다보이는 바다의 實景을 백일때 海邊으로 로케슌을가다 또 거기다가 室內세트를맨든다 칠이무처 들어지만은 이方法만 使用한다면 아조 簡單히 백일수잇다。即 室內의 窓으로부터 내다보는 사람을백인 寫眞과 바다의 實景을백인 寫眞을 가지고 合成寫眞으로 맨드러 버리고만다

바다ㅅ속의 寫眞을 백이기위하야 宏壯한 상자를 맨들어 가지고 카메라와 사람을 담아서 바다ㅅ속으로 떨어트렷다는것은 벌서 녯날 호랑이가 담배먹든 시절의 이야기다。지금은 그러케 무용한 경비를 드릴까닭도 업고 그러케 귀찬은 노릇을 할필요도 업다。바다속이고 공중이고 지금은 瑠璃의 트릭으로 寫眞을 백이어서는 合成寫眞을 맨들어 버리고 만다。아조 精神을 차리고 보기전에는 一般觀客이속지안흘 재조가 업는것이다

로이드의 喜劇에서 흔히나오지만 地上數十層우에서 아슬아슬한 才操를부리는것도 合成寫眞으로 만들어서 백일수 잇다。

그뿐 아니라 米國안저서 巴里의 에펠塔이라든지 倫敦의 템스河반이라든지 路費한푼도 안드리고 수고 도 안 드리고 척척 백이낼수가 잇는것이다

그외에 구라스 와이라고해서 硝子板에다가 그림을 그리어서 實物과 한께 寫眞을 백일수가 잇다。大槪 큰 세트는 下部만이 實物이요 上部는 거의 全部가 그라스、와이다。그러나 觀客의 눈이 漸漸깨어서 그라스 와으로는 속지를 안케 되니까 獨逸서만 方法을 發見하얏다。그것은 거울의 反射를 利用해서 實景과模型 또는 實景과 寫眞等을 合成하는 것으로 슈프탄、푸로세스라고 말한다。現今 米國서는 그라스、와 파 슈프탄、푸로세스의長所만을 取하야改良해 쓴다。그것이크라스、푸로세스라는것이다。여긔보이는寫眞은 파라마운트映畵結婚行進曲中의한場面이다 實際세트를맨들어 가지고 백인것은下圖의 部分뿐으로서 다시거긔다가 그림 模型等을 合成해백이어서 上圖의 場面을 나타내고잇는것이다

◇……結婚行進曲의한場面……◇

비나눈은 이러케

라디오

三十日(木曜)

◇午後六時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伊太利)(二) 金 道 泰
◇同六時二五分 講演 靖國神社祭日을當하야 總督府通譯官 西村眞太郎
◇同七時三〇分 講演「公衆道德에對하야」 柳 光 烈
◇同 꼿노리의밤 一、時調 二、男唱지름 三、鍮川歌 四、제비가 五、놀양 六、암산打令 七、뒷山打令 八、박아타령 九、양산도 一〇、漢江水打令 綠 牧 丹 李 竹 葉
◇同九時 花煎노리 李飛鳳 柳開南 丁元燮 朴鍾基 吳太石 曹明洙 金世俊 申錦香

第一放送
◇午後六時 新童曲 鈴木美佐保
◇同六時二五分(仙)講演山居倉庫와莊內米
◇同六時五五分(東)커렌트、토픽스 山形縣酒田米穀取引所理事 田口雄一郎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大)詩의朗讀
◇同八時二〇分(大)物語高瀨舟 森鷗外作 大東壽三郎
◇同八時五〇分(東)浪花節 東家 樂燕

五月一日(金曜)

◇午後〇時五分 男唱지름外 一、男唱지름 二、遊山歌 三、船遊歌 四、달거리 朱壽奉 申蘭秀
◇同六時三〇分 童謠 尹德喜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初夏의料理」
◇同七時 兒童時間「有毒植物이야기」 培花女高 李德鳳
◇同八時 記念講演「第十回全國兒童愛護週間實施에對하야」 朝鮮總督府社會課長 嚴昌燮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水宮歌 金 演 守
◇同八時五五分 古譚「烈女鄭氏」 申 淸 居
◇同九時二〇分 名曲鑑賞「레코-드演奏」 뉴-욕필하-모닉管絃團 指揮 멩겔베르그 交響曲「英雄」第三番…베-토-벤作曲 解說 朴 慶 鎬

第一放送
◇午前六、三〇(東)國語講座(三)佐伯常麿義
◇午前一〇時三〇分(東)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大)시네마콩트
◇同一時(東)婦人時間
◇同三時一五分 家庭의時間(朝鮮語·釜山)初夏의料理 尹德喜
◇同六時(東)兒童의音樂會 一、獨唱 二、피아노獨奏 三、뷔부라혼 吉澤 園子
◇同六時二五分(東)基礎英語講座(八) 闐谷 榮
◇同六時五五分(東)커렌트·토픽스
◇同七時三〇分 講演 第十回全國兒童愛護週間實施에際하야 總督府學務局長 渡邊豊日子 (東)—九段靖國神社能樂堂에서中繼
◇同八時 落語 桂 文樂
◇同八時二〇分 講談 忠義藏 一龍齋貞山
◇同九時一〇分 芙蓉曲—杵屋佐吉作曲— 唄 杵屋佐奈美 杵屋佐登代 杵屋佐喜榮 三味線 杵屋佐喜藤 杵屋佐忠 上調子 杵屋佐喜榮

눈이휘둘리는 映畵人의高俸

【와싱돈發同盟電信】 아메리카에서 누가 第一多額의給料를 밧느냐는問題가 요지음 發表되얏다。一九三四年度米國財務局報告書에依하면

第一位 經育事務所機械株式會社社長 토-마스·와르손 三十六萬四千四百三十二弗
第二位 映畵俳優故윌·로지아-스 三十二萬四千三百十四弗
第三位 映畵女優자네트·게-나- 二十五萬二千五百八十三弗

映畵俳優中에서는

샬리-·템플	一三、○六四
리차-드·아-렌	一二、四九九
찰스·파렐	五五、○○○
에드만드·로	一四、七五○
뷕·마크라렌	三○、○○○
난시·캬롤	四九、五八三
크로-데트·콜벨	三六、六六六
크레-스·무-아	三五、○○○
푸레데릭·마리	一五七、四五八
월레스·비아리	一○○、○○○
모-리스·슈봐리에	一三○、○○○
크라-크·게-불	九四、六六六
콘스탄스·베네트	四○、○七七
찰스·로-톤	六五、○○○

海外映畵消息 「露西亞」

▼레닌그라드의科學冒險映畵「月長石」(룬두이、카-메니)가 封切되얏다。自然과人間의 鬪爭 邊境地帶의征服을 테마로 해가지고 現存한 사베트의 有數한 自然科學者 學士院會員 아、이에、펠스만博士의 學術上 이데아를 基礎삼아 베、쥬도브로보가 脚色한 것이다。博士의意見에 依한다면 寶貴된 鑛物이라는 것이 잇슬것으로 그것은 氣候條件의變化를 除하야 그化學的性質을 喪失한 것이다。例컨대 月長石이라고 부르는 이레니트와 가튼것이 그런것으로 그 물이 잇는곳은 일적이 乾燥 溫暖하든 地方이 猛烈한 寒地로 變하얏다는것을 말함에 지나지 안는다。事件은 이 月長石의 神秘를 에워싸고 타직스탄共和國의 어름과눈으로 더핀 高山地帶를 舞臺로 하야 아메리카의 探偵小說式事件이 展開되는데 一年間에 亘한 그들의 로케슌은 人跡不踏의 處女地風景을 紹介하야 一種의好奇心을 끄으나 乃至 펠스만博士의科學的이데아 映畵의根本테마는 成功한줄이 못된다。

監督은 前番 極北의 劇映畵「夜의 勝利者」에서 此種映畵에 先着鞭한「아도리프·민킨」及「고리·숄로프린」의 二人合作 撮影은「에프·산드베로그」作曲은「베·아라포프」主演者는「도론」敎授로 扮裝하는「게·미류린」以下「유-·몰베이에프」「게·오를로프」「카·아다세프스키-」「베·포-도에프」「에프·카유코프」人民俳優「예스·미호엘스」功勞俳優「그로프리-노프」等이다。

▲功勞藝術家「에스·에이젠슈타인」의「모스필름」映畵「베-진草原」의 撮影은 中央黑土地方에서 七分이나 進行하고잇다。蘇聯의「피오니르」에 關해서 어린英雄의 物語로서 田園의 少年「스초-프칸」——「파브릭크·모로조프」가 主人公이다。少年이 富農들에게依해서 慘殺되는 悲劇의 絶頂이다。「스초-프카」에는「모스크바」「크라스노프레스넨스크區第三十四小學校의 生徒「비-챠·카르라쇼프」가 選出되엿고 그父親에는 功勞俳優「베·에·자하프」가 扮裝하기로되엿다。脚色은「아、루젠쉐프스키-」撮影은 例에依해서 功勞藝術家「에、팃세」이다。

▼슈-스체프필림(高門技術映畵製作所)「레-닌그라드」工場製作「七個의防禦陣」(세미、바리에로프)는 軍事使命의 遂行에 關한事件을 말하는것이다 作戰行動을 이쪽의 赤軍司令에 通하는重要密書를 二人의 騎兵이바더 敵軍의 모든 防禦陣을 勇敢하게 技術的熟練으로 突破하는것인데 그冒險中한사람은 드듸여傷한다 거긔에서 非常한周到와 自由判斷에 依한 두사람의 適切한行動이 描寫되엿다 그동안에 戰線은 刻刻으로 變化하야 最初의 作戰을 全然 變하지아니하면 안되게된新事態가 생겨난다 거긔에서 第三의 騎兵을 使者로하고 먼저 前의 두 사람의 뒤를 急進하게된다。그리고 거긔에 赤軍士卒의 自覺、軍事準備、果敢한것等이 全幅的으로 나타나고잇는것이다、脚色者「베·웨르트호프」、監督「엘·아리보르프스키-」의 功績은 그들이 赤軍의 生活과 特質을 잘알고 一見 技術上의問題를 解決하는것가치 보이는 映畵의 構成에 當하야 이나라의 人間의 산實寶한 모양을 잘表現한點에 잇슬것이다。「베·야코브레프」及「떼·쿠르산쎄프」兩人의 撮影도 아름답다 作曲「에스·리틴」이데 이映畵는 놉히 評價할수잇는 傑作品이다

「모스필름」의監督「유·라이즈만」는「飛行家」에 다음가는 大作「最後의一夜」의 製作準備를 完了하고 四月上旬부터 撮影에 着手한다「예·가블리오윗치」의「씨나리오」는 하로ㅅ밤에 생긴일을 그하로ㅅ밤에 勞働者家族의 運命이 엇더케 衝突하며 엇더케 一變하는가를 말하고 그것을通하야 十月革命의 戰鬪의 그反映을 提示한 政治的 … 運命의 必死의 喧騷를 지나가고잇다、「十月」의 하로ㅅ밤의 戰鬪는 革命的勞働者와 兵卒과의 勝利에 끗난다 그瞬間부터 사람사람의 새로운 運命이 始作된다、工場主의一家는 逃走者가되고 異邦人이되고「자하르킨」一家가「十月」의 英雄이오 勇敢한 鬪士엿든 사람 사람들이 主人이된다 撮影者 俳優其他는 未定이나 大部分은 新人들이 登用될모양 映畵는 今年九月에 完成될 豫定이다

圍碁對局譜 —12—

本社主催

白 李 會 輝
黑先 張 賢 文

●三	乙의三
○四	丙의十四
●五	丙의十五
○六	壬의十九
●七	子의十九
○八	寅의十四
●九	癸의五
○一〇	丑의一
●一一	丑의二
○一二	壬의五
●一三	丁의一
○一四	己의一
●一五	甲의七
○一六	甲의六
●一七	甲의八
○一八	甲의四
●一九	丙의一
○二〇	乙의一
●二一	己의十四
○二二	丁의十五

上圖의 … 이다

蔡權文氏評日 此回는 未端裝束이라 別無講評이되 未端境遇는 一二三瑞分換이 必要하고 以杜後繁가 亦一要目라할수잇다 黑은 十四가 後繁가잇스므로 先着한은 黑의 明見을 한번 稱道하노라

將棋名手對局譜(七)

本社主催

漢 李在鳳 手先 滅一兵 楚 李明輝

◀圖手十六▶

◀圖手十七▶

甲寅(?)一乙 乙七包一乙六 丁七包一辛 戊五象一丁五 己五兵一己六 乙六象一乙二 乙五車一甲五 戊四兵一丁四 己六兵一庚六 丁五象一丁七

四月廿九日封切 每日三回 三十九夜 名優로바-트·도-낫主演 마데린캐롤共演

薔薇의寢床 카메·본·나치主演

朝日世界뉴-스

全鮮第一映畵殿堂 團成社 電光

四月二十九日ヨリ五月五日マデ 「春の爆笑週間」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ひやめしお旦那
車に積んだ寶物
極樂槍騎兵
若旦那百萬石
下加茂落語トーキー

▲ひやめしお旦那 小笠原章二郎が春風亭柳橋張りの落語「寝ぶろ」が聞きものです。 浦田ナンセンス

▲車に積んだ寶物 小倉榮·笑賃小僧主演 メトロ·ゴールドウイン提供

▲極樂槍騎兵 スタン·ローレル オリヴア·ハーデイ主演 浦田明朗トーキー

▲若旦那百萬石

洋畵專門 浪花館 四月廿九日부터五日間 午前十一時부터六時半까지繼續映 七時半始映 封切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
유나이테드 廿世紀社超特作全發聲 監督씨드니·푸랑크린畢生의作品 다-크·엔젤 悲戀의二人이離別의밤·멀니들려오난戰爭의砲聲은그들의結婚行進曲이엿섯다
R·K·O라지오·바이오티아合同超大作全發聲 監督루-벤·마므-란 미랑·호프킨스主演 世界最初의新機式總天然色 虛榮의市
次週 再現！大衆藝術 近年에보지못한新羅史劇半月城의秘話

仁寺町 朝鮮劇場 電光二六一
四月廿八日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三回晝夜十二時부터六時半까지繼映 夜間은八時 大衆料金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유나이데드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頓馬빠루-가 지미·레-란드氏主演
米國F·B·O社特作無聲版 曲藝天國 다그라스·마크라렌氏主演
彰法師 阪東妻三郎氏主演 二川文太郎氏監督
第一劇場

生路찾는移住民 全南에서千餘名

北朝鮮各工事場을向하야 二十九日一齊出發

【光州】작년의 흉작으로 인하야 전남각지에서는 리재민이 정든고향을 떠나 정처도업시 처자식들을 붓들고 노동시장을 차저 헤매는자가 만흐며 또는 만주로 가는등 눈물어린사실이 불수업는 현상인바 그사정을 안 도당에서는 총독부사회과와 협의한후 전남각지의 이재민을 모집하야 북조선 각지회령(會寧)방면에 이민케되엿는데 그수는 전남에서만 총수 일천명이라는바 호(戶)수로는 일백이호외에 독신이백여명과가티 이십구일 목포(木浦)를 출발 차로 출발하게되엿는데 출발이민하거든 각군별과 인수는 다음과 가타한다

郡別	家族	單身
◇羅州	二〇戶	十九人
◇莞島	一	二十五
◇務安		五
◇靈岩	十八	三十二
◇長興	十八	十九
◇和順	十六	二十九
◇光山	六	二十一
◇光州府	五	五
◇潭陽	三	二十一
◇谷城	十二	十二
◇求禮	十四	二十二
◇計	百十二	二百十一

제오호열차시까지 운전하든 그것을 오전열시부터 오후여덜시까지 운전하기로 시간을 연장하엿다

三春의雁鷹가티 北向하는移住群 廿七日雙溪에서出發

【安東】경북도당국에서는 도내 각군에 산재하여잇는 세농민백여호를 선발하야 멀리북만주 어빈(於賓)등지 모농장지대로 이송케되엿는데 의성군(義城郡)내에 배정되엿든 이십호 일단백여명은 지난이십칠일 오전구시경에 동군비안면쌍계(比安雙溪)에 집합하여 따뜻한 남쪽나라의 고토를등지고 출발하엿는데 만의 새얼리로 출발하엿는데 다수 전송자의 눈물겨운 석별의정경은 동행하는자의가슴을 일층더쓰리게 하엿다고한다

扶安郡에서도 廿六家族出發

【扶安】조기여가는무리……기름진땅을 원통히바라보며 처자를 울리면하고 생소한 만주벌판으로 몰리여가는 가련한이땅의농민은거월에 선발한 부안군내의 만주이민 이십육호가족은 지난이십육일에 출발하야 신태인역에서 열시십사분차로 떠나갓는데 그들은 부안에서출발할적에생리별하는 부모친척과 정든사람들이 서로붓들고 보는사람으로서도 애긋는 통곡을하야 일시는 부안읍내가 장연한우름의바다가 되엿섯스며 참아 떠나지못하는정경은 눈물업시는 볼수업섯다한다

六臺에「싸이렌」

【北靑】함남 북청군 신포면 부대소방조(六臺消防組)에서는 총공사비구

江西炭坑에서 坑夫또慘死

【江西】지난이십칠일에 강서부연탄광(江西炭坑)에서는 도탄광의화부가 작업하다가 돌연 천반의 석탄이 무너저서 작업하던 리모(李某)(二○)가 깔리어 중상을 당하여 응급치료를 하엿스나 치명상을 입은 관계로 이끈히 사망하엿다 한다

平壤人口 激增 三月末까지三個月間 四千三百餘名增加

【平壤】평양, 대동경찰서의조사에 의하면 삼월말현재 평양부의인구는 호수와인구가 증가되엿다는바 인구실태는 작년말현재에 비교하면 이것은 적년말현재에 비교하면 겨우삼개월동안에 호수사백여와 인구사천삼백여의 증가를 보여 날로 증가되고잇는 실정이다

密偵二名射殺한 李光福에十三年役 海州法院에서言渡

【海州】국부흥당 밀정(密偵)두명과 동지한명을 오해로인하야 부하수명을 데리고 총살(銃殺)하고 상해(上海)방면으로 망명하야 김구(金九)일파와 악수하고 조선○○운동에 투신활동하다가 상해일본영사관의 손에 검거되여 세칭 금천백마(金川白馬)사건의 주범·황해도 옹진(甕津) 출생 리광복(李光福)(三二)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급 살인죄(治安維持法違反及殺人罪)에 대한 언도공판은 지난이십팔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석천(石川)재판장 심리로 개정되엿든바 검사(檢事)의 구형보다 이백이 정한 십삼년의 징역을 언도하엿다 한다

大盛況을豫期하는 新春音樂大會 五月十六日夜白氏館

【平壤】평양신창(新倉)교회 엡윗청년회에서는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오월십륙일 오후여덜시부터 부내 백선행기념관(白善行紀念館)에서 신춘음악대회(新春音樂大會)를 개최키로되여 목하 준비중인바 이밤에 출연하는악사는 「피아노」의대가 「필스베리」씨, 「쏘프라노」의명가수 「루스보인」 그리고 부내가튼바 남녀 숭실전문 외에 서양음악교(西洋人校)의 「밴드」대와 특별출연 등이 잇는외에 유명한 음악가의 출연이 잇서 신춘의한밤의 위안을 충족식히기에 부족함이 업슬것이라하며 입장료는 백권(白券)이십전의 대중적료금이므로 음악에취미가진부민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여 만히 참가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權五稷出獄 共黨의中心人物

【大田】제사차공산당(共產黨)사건의 중심인물인 고권오설(權五卨)의 아우 권오직(權五稷)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오년의 판결을 밧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대전형무소(大田刑務所)로 이감된후 ×××만세를 부르고 팔개월의 가형을 밧다 오늘복역하든바 사십일에 만기출옥이 되어 경성집으로 당일귀향하얏다 한다

蝀龍窟에照明燈 合電에서單獨發電으로 明年中에는實施?

【平壤】지하궁전의 기어잇는평북 부내면(平北寧邊)에소재한 명승 동룡굴(蝀龍窟)은 출구수도(出口隧道)의 공사준공으로 탐승객의 편리가 만흐나 전긔조명장치가 업서 퍽도유감이어서 이문제는 현안으로되여 금일에 이르럿고 서선합전(西鮮合電)에서조명장치를 계획햇스나 경비관계로 실현되지못하던바 이번 합전(合電)의 내등(內藤)과장이 실지 답사한결과 단독발전(單獨發電)으로할수잇는성안이되어 연구에착수하엿다 아마도이안은 명년중에는 실현이되리라한다

全朝鮮弓術大會 本報支局後援으로

【長淵】경긔도장연읍권(長淵邑)내 번영회(繁榮會)에서는 삼호가 본보장연지국후원하에 오월 사일부터 사일간 정조선궁술대회(全朝鮮弓術大會)를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동대회의 긔세를 어 지금부터 크게 기대된다

本報裡里支局主催 全朝鮮自轉車競技 一流決勝優勝은京城軍

【裡里】본보리리지국주최인 제이회전조선남녀자전거경기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오일 본사리리공설운동장에서 대성황으로 거행하엿든데 결승의경과는 다음과가티한다

◇고스타-決勝

一着(全州)　二着(京城)　三着(裡里)

◇女子決勝

一着(全州)　二着(群山)　三着(群山)　四着(本道)

◇四流決勝

一着(裡里)　二着

◇三流決勝

一着(裡里)　二着(全州)　三着(裡里)

◇二流決勝

一着申相玉(群山)　二着(全州)　三着(光州)

◇一流決勝

一着李相白(京城)　二着(全州)　三着(京城)

◇總合

一着李相白(京城)　二着(全州)

◇寫眞…(上)出發할려고하고잇는自轉車選手一同 (下)在優勝選手一同

愛慾의彼岸【1】

李光洙 作　金康穆 畫

「어머니!」

하고 혜련은 책보퉁이를 끼고 안 마당에 들어섯다. 자주 목모리 치마에 한양목양목 겹저고리, 굽놉지아니한 여학생 구두. 스므살이라는 나이로 보아서는 애스되게 보인다. 몸이 좀 호리호리한 탓일까. 고생을 아니하고 곱게 자란 탓일까.

「아가씨 오세요?」

하고 앞에 방에서 침모가 김장로의 겹옷을 짓다가 반짓고리를 든채로 고개만 내밀어서 혜련을 본다.

하고 혜련은 어머니 미닫이를 안는다.

「오 혜련이냐!」

하고 베와 가족만 남은 김장로 노부인 오경(吳瓊)은 눈을 번히 뜬다. 방에서는 냄새가 나고 우중충 하다.

「어머니, 웨 잡술것을 가저오라고 아니 일르시우?」

하고 혜련은 머리맡에 노인의 병, 홈스그릇 요강 가튼것을 임히 건사해 본다.

「먹기 실흔것을 어떠케 먹느냐, 몸만 먹어도 배가 압흐구」

「어머니 무엇 좀 잡수셧수?」

하고 혜련이 묻는 말에 침모는,

「아침에 미음 한 붓지기 잡수시고는 여태 아모것도 아니 잡수섯답니다. 아가씨나 잡수시라고 권하서야 잡수시지 영 안 잡수시는걸」

하는 침모의 말에는 좀 간사가 잇다.

「웨 빵허구 우유허구 안 렷수? 복숭아수 허구」

하고 혜련은 짜증을 내며,

「웨, 그만큼 일르고 갓는데 알른는대로들 안 할까.」

하고는 유모를 한번 흘겨보고 안 마로를 향하야 걸어가면서,

「언니, 언니!」

하고 건넌방을 향하야서 부른다.

「누님 우시우?」

하고 혜련의 오빠 종훈(鍾勳)의 안해 문희는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모양으로 눈이 부시어하면서 창을 열고 잘은 런애가 끼기를 꺼리는드시 몰래 말라깽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혜련은 문희가 어련애를 재우는줄 알면서도 일부러 모채하고,

「언니도 언니지, 어쩌면 니를 식전에 미음 한 술 이고는 해가 다 저믈때가 되도록 아모것도 들일생각도 아니허우?」

하고 구두를 버서버리고 앗방으로 들어간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은경은 입맛을 다신다.

「그러케 안잡숫고야 사나?」

하고 혜련은 귀신이 다된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헝크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넘기면서,

「그런데 웨 수술을 아니 하시우? 유선생 말슴이 수술을 하면 위를 떼어내시면 살아나신다고 아니합듸까. 우리 학교 동무중에두 저의 어머니가 위암이 생겨서 수술을 하구 낫다든데. 아부지가 아모리 고집보기루 어머니 입원비야 아니 내시겟수? 우리 집 세간을 다 누가 모앗는데. 왜 아부지 혼자서 모우섯나 어머니가 아니 벌구 아니 쓰구 모으섯지, 웨 돈을 애껴서 수술을 아니 하시우?」

「인제 수술은 하면 무얼 하니? 그만큼 앓앗스면 죽어도 조치 난 그저 네나 조흔 남편을 어더서 잘 사는 것을 보고 죽엇스면 한이 업겟다.」

「어머니가 얼마나 만히 사셧다구 그래시우, 오십도 다 못되시고는?」

「어떠내는 오십이 되면 다 사신 이 별인 줄어두 괜찬엉 보렴으나. 너의 아버지가 어되 내 거레 업산이나 하는 인제는 너의 아버지도 젊은 여편네 생각이 나나보더라. 나만 죽어버리면 돈은 잇겟다, 젊은 여편네를 어더서 잘살지안캣니?」

하고 은경은 그 햇숙한 얼굴에도 흥분한비췃다.

Gonophamin ゴノファミン

淋疾治療注入藥고노후아민의特別한效力은 深達性殺菌作用이敏速함으로注射藥、內服藥、座藥等보담速하게全快됩니다淋疾藥에對하야廣告其他宣傳에迷惑처마시고治療期間이短하며信用이잇고特效잇는本藥을使用하여보시압

淋疾最新治療藥 注入劑

【適應症】
급성림질、만성림질、소갈、방광가다루、요도소독(尿道消毒)、질내소독(膣內消毒)

【價格】
二圓　三圓　五圓

【滿鮮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

元賣發鮮滿 阪本治作藥品部 京城旭町

輕便洋服收納器

一個宛ルーボンタ函入折疊式
長三尺八寸

輕便洋服收納器 (服掛三個付) 一個代金 二圓九十錢 (一個小包送料 二十三錢)

折疊寸法 長一尺三寸 巾一尺三寸 深八寸強

本器는四方에카텐을치고서벗기고치기가마음대로되며鮮洋服三件以上을걸수잇고의이사쓰、넥타이등을두수가잇습니다取扱키便利하고體裁도조코모든것이今大流行의理想品입니다

杜掛洋服收納器 (服掛一個付) 一個代金一圓八十錢

小包送料 一個六十七錢 二個九十三錢 三個九十九錢 四個一圓二十錢

본品은洋服一着과외투가넉넉히들어가는組立式입니다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振替名古屋一〇三七七番 電話中三九九六番

南鮮名唱大會 一等當選 謝禮 慶州 徐雲仙

淋疾……淋疾에……ネオチリン 네오지린 各有名藥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局

朝鮮唯一 認可電醫 物理醫療士責任教授 滿三週年特與生募集

最新物療全科教授要目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 朝鮮에도近近取締規則이發布된다하니無試驗으로開業資格을어드라는者는速히入學하라本院卒業生으로廢開同業에意敬을受하고皆成功함 希望者에게는規則、內容견送呈、業書로申込하라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四四番地

◇近來本院의名稱을假稱하는類似者가잇스니特히注意하시라

眞品 海狗腎을服用하라

長生不老도 陽氣가 조아야! 大業成就도 陽氣가 조아야! 陽虛한 男子는 生不如死다! 速히 이─樺太廳官營採取品인

本品은補精腎氣強壯에神秘的靈效가有한바北洋寒帶地方의產物을樺太廳에서官營으로捕獲하야同廳水產物檢查所에서嚴正檢查證明한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一服하시면그神効를能히料量할것이외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說明書請求次第곳進呈함)

發賣元 合資 太洋貿易社 釜山府 電話長二二九番 振替釜山七九二番

四月三十日早리大公開 料金 階上 大人三十錢 小人十五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 낫一時、밤七時三十分始映

米國마스콧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戰爭活劇 武俠一代 監督…푸오도피 주연…빌리마르크·라구렌氏 時代活劇 仁念寺奇談 名同近藤右門의奇智縱橫의大捕物陣を見よ 大都映畫社特作品 大喜劇 與太者世界

仁寺洞 桃花劇場

天下無敵의名畫鑑賞週間!! 五月二十八日早터特別大公開! M·G·M超特作全發聲版日本版 寶島 巨匠빅터·후레밍그氏大作 作키·쿠─파─·리오넬·바리모어氏 老練된演技와天才的妙技 名畫 M·G·M超特作 RKO超特作全發聲日本版 肉彈鬼中隊 巨匠조─스 大活劇 好男子異狀あり 山路德三郎 黑ひかる 主演

貫鐵町 優美館 電光三九五

四月二十四日早리(晝夜二回) 午後一時半 七時半 東劇座公演(第二週) 悲劇 아들의죽엄 二幕 哀話 紙幣를찢는女子 一幕 時代劇 復讐三尺劍 一幕 喜劇 天國이냐地獄이냐 一幕

西大門町 東洋劇場 電光三三一一番

五月一日ヨリ三日迄特別公大開 ユナイト社超特作日本版 結婚の夜 名匠キング·ヴィダー監督作品 アンナ·ステン·ゲーリイ·クーパー主演 メトロ社超特作日本版 私のダイナ クラレンス·ブラウン監督作品 ジョン·クロフオード·クラーク ゲーブル主演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女優と詩人 成瀬巳喜男 千葉早智子主演

若草町 若草映畫劇場 電本三三四番

當る廿九日特別大公開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或る村の出來事 新興キネマ大映超特作 阪東妻三郎主演 時代劇 森尾重四郎 或る村の出來事 オール·トーキー 松竹大船 中央館 上野都 中野實 東京發聲超特作 オール·サウンド 戰へる劍の中來事 中央館

日埃會商破裂

●……其間經過事情

昨秋以來 繼續되어오든 日埃通商會商은 廿日에 이르러 全然絕望에 부딧처 日本代表는 近近 「카이로」를 떠나기로 되어잇다한다 그經過를보면 다음과갓다

×

埃及政府의 通商擁護的 關稅로 因하야 日本 商社代表一行이 「카이로」에 到着하기는 昨年十月十八日인데 日埃通商會商은 三月二日에 開催되엿다 그리하야 日本代表는 ……

米穀取引所는 一個所案有望

◇……資本金七千萬圓으로서 半官半民의會社組織

▲横山朝取支配人談 米穀自治管理案實施에 伴하는 米穀取引所의 更生策을 研究할 東京의 全國取引所聯合大會에 出席中의 横山朝鮮取引所支配人代理는 卄九日 歸京한바 다음과가티말한다

聯合會에서 問題가된 案中 第一案은 現米取의 赤字政府補塡 第二案은 全國一米取案 第三案은 非營利取引所의 新設에依하야 公定市場을 出現하고 現取引所는 國家가 賠償하라는案인데 그中가장實現性이 잇는것으로 有望視되는것은 第二案으로 全國一米取案으로 이것은 資本金七千萬圓의 米穀取引所를 設立하고 半株는政府가 所有하고 半株는 取引所株主와 取引員이 所有하며 一面二千萬圓의 低利資金을 借入하야 倉庫, 運送, 金融等會社를 政府에서 六分配當을 保證하라는 案인데 米穀自治管理案의 實施와 함께 必至의 ……

朝鮮市場賣上額

昨年中二億八千萬圓

地方經濟의 好轉으로 全朝鮮各市場의 賣上은 累年膨脹傾向을 示하고잇는데 總督府 商工課調査에依하면 昭和十年中 全朝鮮千四百九十七市場의 賣上總額은 實로 二億七千九百四十四萬八千圓의 巨額으로 前年에 比較하야 四千百萬圓의 激增이다 그리고 最近數年의 賣上高를보면 다음과갓다

昭和七年	一七九,三六三,五一四
同 八年	二〇三,六三一,一四九
同 九年	二三八,七九〇,六六三
同 十年	二七九,四四八,〇〇〇

그리고 十年中賣上中 首位는農產物의 八千百七十三萬七千圓 그다음은 畜產七千四百五十七萬圓 織物三千八百九十五萬圓 水產三千五百八十六萬二千圓等이다

▲取締役二名及監查役一名選擧의件

▲資本金增加의件 船舶購入其他事業의擴張에伴한 資金에充用키爲하야 資本金 三百萬圓을 一千萬圓으로增加하되 右資本金增加의 方法은 다음과갓다

(一) 增加資本金七百萬圓에 對하야 一株五十圓의株式十四萬株를發行

(二) 第一回拂込金額은 一株에 十二圓五十錢

(三) 增加新株式의 募集及第一回拂込의 時期決定은 取締役에一任

(四) 增加新株式十四萬株中 六萬株는 前項에依한 申請期日의前月末日午後五時 株主名簿登錄現在의 株主에對하야 그持株一株에對한 一株의比例로써 이것을配定하고 殘八萬株는 朝鮮內에서 一株五十圓을 緣故募集

(五) 引受가업는 株式의處分其他此資本金增加의 實行方法에關하야 生기는 一切의 事項은 前四項에 定하는外 모두 取締役에서 適宜히 이것을處理

▲定款改正의件

一、二號案을 모두異議가업시 可決, 第三號議案은 森, 岡田, 瀨口三氏 重任, 第四號議案은 林繁木幹雄(日本郵船專務)、林 …… 兩氏當選, 第五號議案은 取締役에 一任하기로되엿다

春蠶掃立 增加豫想

【蠶絲會調查】

總督의好勢로 各道의 春蠶掃立數는 激增의傾向인데 蠶絲會調查에依한 各道의 前年對比增加數는 다음과갓다

▲咸南一割四分 ▲慶南一割三分 ▲京畿五分三厘 ▲忠北五分 ▲忠南四分五厘 ▲全北三分 ▲全南八分五厘 ▲慶北四分 ▲咸北一割六分

而今 平南北 黃海의 三道는 豫告未着인데 各平均八分增으로 推定되어야 平均一割增 總掃立七千萬枚가 豫想된다

增資案可決

三十日總會에서

朝鮮殖産의 定期株主總會는 三十日午前一時부터 同社會議室에서 열고 營業報告書 財產目錄承認의件 利益金處分案決議의件 ▲取締役 …… 三氏 任期滿了에 依한 改選의件 ▲取締役小寺四郎 岡山本等 後任選任의件

外地米生產費 安協困難

調查會時日遷延

外地米生產費協議會는 二十四日再會以來 繼續하야 內閣調查局에서 開會中인데 처음에는 此會議에서 結論이 나올것으로 期待되어잇섯슴에 不拘하고 또依然 質疑應答이 거듭되어 容易히 結論에 이르기어렵게되엇는데 朝鮮側關係者는 上月內의 豫定으로서 出張中이든바 다시 十日을 延期하엿다 農林省에서는 議會의 報告와 自省案上程上 政策的으로도 빨리解決하라고 ……

▲廣瀨專務就任 朝鮮新聞社에서는 總會終了後에 初重役會를 열고 協議한結果 森秀次氏가 社長으로 廣瀨博氏가 專務로 就任하기로되엿다고

…井總治郎(朝鮮新聞社)의 兩氏, 監査役에 …… 第六號議案은 取締役會一任으로 決定、第七號議案은 原案대로 可決、同二十分에 終了하엿는데 利益金處分案은 다음과갓다(以下單位圓)

當期利益金 九一、三九五

前期繰越金 七二、五八六

朝鮮內의 麥酒生產

昨年中四萬石

朝鮮內麥酒의 十年中生產高는 四萬二百五石 金額 三百六十七萬二千圓으로 前年의 一萬八千九百餘石 百七十三萬三千圓에 比하야 十四割의 激增이잇는데 十一年度는 大體十年度와 同樣의 豫想이다

下旬對外貿易

入超千七百萬圓

【東京電話通】大藏省發表에依하면 四月下旬對外貿易槪算調查는 다음과갓다 (單位千圓)

輸出	一八〇、六七七
輸入	一九七、六二三
計	一七八、三九九
入超	一六、九四五
一月以後入超累計	一二六四、三三六

第二回低利借換과

新公債發行의條件

【東京電話通】大藏省發表에依하면 政府는 六月一日附로써 昭和十三、十四兩年度中에 期限到來하는 五分利國庫債券 合計四億五百餘萬圓의 第二回低利借換을하기로하고 그借換으로 發行할新公債의條件을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一、發行總額=四億一千三百萬圓

一、利率=年三分五厘

一、期限=昭和二十四年六月一日(十三年第一回借替分一年延長)

一、發行價格=九十八圓

一、利廻=複利三分六九五 單利三分七二八

一、發行方法=日本銀行引受

그리고 日本銀行은 乘替希望者에對하야 前回대로 優先的賣却의需要에 應할터이라고

▲金融界觀測【東京電話通】別項과가티 第二回五分利公債借換額이 發表되엇는데이에對한 金融界 一般의 觀測을 綜合하면 大體다음과갓다

第一回의 乘換成績은 九割三分三厘으로 極히 良好한 成績을 示하엿다 繼하야 이情勢下에서 다시 第二次 借換을 斷行한것은 妥當한 措置이다 그리고 發行條件에 關하야는 ……

佛國銀行株暴落

◇……大戰後最低記錄

【巴里二十九日發電通】二十九日의 巴里取引所에서는 佛國銀行株가 賣叩되어 暴落을하야 二十八日의 止値七千二百八十法이든 同行株가 二十九日아츰에 六千四百二十五法 即八百五十五法低에 落되엿는데 이는 大戰終了以來 十七年間의 最低記錄을 나타내엿다 以上과가튼 佛國銀行株가 暴落한原因에對하야 巴里取引所理事長은 이暴落이 何等의 不正한作爲에서 나온것이 아니다 調查한바에依하면 右賣付은 數人의 株主의 手에依한것으로 이는 左翼方面에서는 이로써 政治的 …… 某一派가 企劃한 故意의 …… 第一次選擧의 結果로 投資家의 …… 市場은 多少回復하야 六千九百法을 唱하엿다 그래도 아즉 前日의 止値에 比하면 三百八十法安으로 大戰後의 不安人氣가 ……

(寫眞은 巴里株式取引所)

改正無盡業令

二三日中公布實施

朝鮮無盡業令改正은 二、三日中에 公布될터인데 施行規則과道知事의 委任府令도 同時에 公布하고 곳 實施될터이라고

不二興業總會

不二興業會社第二十二期 定時株主總會는 卅日午前十時부터 同社에서 열고 左記利益金處分案을可決

一、取締役木村雄次, 監查役高田兵次郎任期滿了改選의件=모두 再選重任

二、取締役藤井寬太郎退任에 依한補欠選擧를 실시하엿는데 株主配當年三分이라고

米日爲替保勢

【京城廿九日發同盟】卅九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保勢

▲東京爲替(三十日)

▲大阪爲替(三十日)

北鮮製紙配當

北鮮製紙化學工業에서는 三十日午前十時부터 東拓會議室內에서 第一回定期總會를 열고 ……

取引停止 五日(四月二十日)

…… 廣田長四郎 ▲京城府本町四丁目 中井龍治

一、昭和十年下期決算案의承認及損失金處分案決議를求하는件을 可決하고 足立副社長으로부터 營業의 狀況을 報告한 原案을 可決하엿는데 損失金處分은 다음과갓다(以下單位圓)

前期損失金 四八一

當期損失金 二六〇

差引損失金 一〇〇

(次期繰越)

經濟界消息

○本府商工獎勵館主催=京畿道 第十五回 商工展覽會는 七月一日부터十四日까지 十四日間 南大門通商工獎勵館에서 열기로 決定되엿다고

○王子製紙安東縣進出=王子製紙會社에서는 豫者 安東進出을 企圖하든바 이번 安東縣下 六道溝에 適地를 買收交涉이 成立되어 元國社新義州分工場 工務主任 小林敏氏를 工場長으로 任命하고 漸次事業의 擴大를 圖키로 되엇다고。

經濟寸鐵

○ ……

商況(三十日)

株式 警戒裡의 伸氣

前場閑散 하로를 쉬이고 난 今朝에도 亦是無味한 場面으로 東新은 十錢低인 百二十九圓七十錢、大新은 七十四圓六十錢 …… 後場 ……

北紙,朝石上場

五月一日로부터

朝鮮取引所에서는 五月一日로부터 北紙와 朝鮮石油를 短期市場에 上場하기로 되엇는데 現在市勢는 北紙十八圓五十錢 朝石十六圓의 仲値이며 事業前의 高價는 北紙十九圓八十錢 朝鮮石油十七圓八十錢唱이엇스며 北紙는 王子系統의 會社로 明春四月은 處女配當을 하기로되엿고 將來는 王子同株一割配當을 하기로되엇고 朝石은 三井, 三菱, 日石, 住友, 日產, 東拓等을 中心으로 朝鮮內의 石油製造販賣業을 目的으로 創立되엇는데 七月부터 營業을 開始 拂込金도 北紙의 倍額二十五圓으로 配當도 今冬十一月에 四分程度의 處女配當을 하기로되고 明春五月부터는 北紙同樣의 一割配當을 할 豫定이라고

朝取前場實物

賣買高一四〇枚

東京國債市況

結局은延長戰

特別議會를展望

東新關係中心

往來程度의市勢

期米 一般人氣 彷徨

各地期米新甫

東京	四〇
大阪	二〇…三〇
神戶	三〇…三〇
下關	三〇…五〇
名古屋	三〇…四〇
仁川	二〇…三〇
群山	二〇
木浦	二〇
釜山	二〇
大邱	二五
熊本	二〇…三〇
金澤	二〇…三〇
京都	二〇…四〇

當地依然伸惱

强材를冷靜視

七限의發會와

前途大勢考察

朝取期米取組內容

堂島前場情報

各地正米

京城强硬 / 仁川强含 / 釜山强硬 / 大邱續騰 / 群山昂騰 / 木浦强調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土金 石金 高價買入 金華堂 大邱本町 警察署前 長電七一二番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②3939 振替京城234

玉蜀黍購入 五圓四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產業組合平北產業組合聯合會를 由하야 多量買入합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產工業株式會社

今日財界(三十日)

金融(三十日)

▲海外經濟 ▲日本銀行勢 ▲朝鮮銀行勢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米國(三十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銀金 ▲京城市中金融

綿糸布(三十日)

▲京城綿糸布市況 ▲京城綿布

油(三十日)

▲滿洲油粕 ▲大連特產市況 ▲滿洲商況 ▲日本麥粉市況

株式(三十日)

▲朝取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朝取長期實物 ▲東京短期取組

米國(三十日)

▲大阪正米標準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粗市勢 ▲橫濱生米 ▲海外棉花

[illegible]